

카네기財團 主催 美·北韓세미나

北韓과의 對話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本 資料는 1989年 5月 30日과 31日 美國 워싱턴에서 開催된 카네기 國際平和財團主催 『韓半島의 緊張緩和』세미나 結果報告書를 業務에 活用하기 위하여 翻譯 發刊한 것임.

同 세미나에는 北韓의 國際問題研究所 副所長 김중수 등 北韓學者 4名과 『셀리그 해리슨』등 美國의 韓半島 關係專門家 25名이 參席하여 軍縮問題 등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統一問題에 관해 集中的인 討論을 하였음.

序 文

최근 수십년간 미국의 소련, 중국 및 다른 공산국가와의 접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韓國戰爭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은 매우 심한 疎遠關係에 놓여 있다.

워싱턴과 평양은 外交關係도 없으며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軍事的으로 深刻한 對峙狀態에 있다. 미국은 한국에 4만 3천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 駐韓美軍은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의 南侵時 引繼鐵線(trip wire)方式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진배치된 지상군과 공군력을 갖추고 있다. 또 미국의 四星將軍이 聯合軍司令官職을 맡아 對北防衛를 위해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하고 있다.

평양의 시각으로 볼 때 美『帝國主義者』의 存在는 한반도에서 分斷과 緊張의 주요 요인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쪽에서 볼 때도 북한체제는 全體主義的 抑壓과 테러국가의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의 『緊張緩和』에 관한 카네기 재단 심포지움이 1989년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북한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북한의 국제문제연구소 김종수 부소장을 포함한 4명의 지도급 북한학자들이 25명의 영향력있는 미국인사들과 만나 非公開로 솔직한 對話를 나눴다. 1948년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로 북한사람이 美國首都에 온 적은 없었다. 이번 심포지움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財團側은 선임연구원 셸리그 S. 해리슨議長의 사회로 한반도 정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미국인 집단과 북한사람들 사이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한지를 모색하려고 하였다. 이 모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美國務部가 북한사람들에게 『學術的이고 文化的』目的에 한

하여 비자 發給을 事例別로 許容하였기 때문이다. ！

財團側은 이번 워싱턴 회의가 북한, 미국 및 한국의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의 컨센서스를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회의가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중요쟁점들을 다루고 있고, 아울러 軍備減縮 措置 및 南北和解 方案들의 協商概要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심포지움은 해리슨씨가 1972년 3월 및 1987년 10월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기획되었는데, 해리슨씨는 그 당시 북한의 지도급인사들 - 김일성 주석, 김영남 외교부장, 황장엽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종수 중앙위원회 국제부 미국 분과위원장 등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해리슨씨는 한국문제에 관해 폭넓게 글을 써왔으며 1987년 訪北期間 동안 심포지움 기획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재단을 대신하여 그는 고위급 대화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적극적이었으나 1988년 서울올림픽이 원만히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1988년 10월 재단은 레이건 행정부에게 만약 북한학자들에게 비자가 발급된다면 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美國務部는 原則的인 協調意思 表明과 함께 북한여행 금지의 漸進的 緩和措置가 검토중임을 밝혔다.

그러나 國務部는 그것을 실행하는데는 최소한 3주가 걸릴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1989년 2월 모임의 날짜, 북한측 참가단의 水準 및 性格, 議題에 관한 合意가 북측과 이루어졌다. 5월 5일 11시 북측 참가단의 명단이 입수되었고, 회의가 시작되기 4일전인 5월 26일 미국의 비자가 모스크바에서 발급되었다.

우리 재단은 한반도문제가 워싱턴과 평양사이에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南北對話 및 美國, 南北韓의 3者 交流關係

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워싱턴회의는 美·北韓接觸의 첫번째 단계로서 평양과 美國 輿論指導層사이의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앞으로 남한의 학자 및 정치지도자, 그리고 한국문제를 연구하는 미국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의견교환 등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해리슨씨는 110 면에 달하는 토론내용을 정리해서 中心爭點에 관한 대화요지를 추출해 내었다. 그러나 심포지움의 非公開原則에 의거, 토론시 참가자들은 단지 美國 또는 北韓으로表記하기로 하였다.

토마스 L. 휴즈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

參 加 者

議 長

셀리그 S. 해리슨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北韓 代表團長

김 중 수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 리차드 알렌 : 前 레이건대통령 安保擔當 補佐官
- 에드워드 베이커 : 하버드대학 엔칭연구소 부소장
- 존 베네트 : 韓國經濟研究所長
- 랄프 클라프 : 존스 홉킨스대학 東아시아 研究教授
『Embattled Korea』의 著者
- 부르스 커밍스 : 시카고대학 歷史學 教授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의 著者
- 존 쿠쉬먼 : 前 韓美第1軍團長
- 존 엔디코트 : 美 國防大學院 戰略問題研究所長
- 윌리엄 글라이스틴 : 前 駐韓美大使
- 스테판 구스 : 프라제크 美下院議員 法律補佐官
『Two Koreas - One Future』의 著者
- 토마스 그레고리 : 援護(POW/MIA)委員會 및 長津湖戰鬪 재향군인회
회장
- 캐슬린 해링턴 : 도드 美上院議員 法律補佐官

- 아모스 조르단 : 美 國際戰略問題研究所 (CSIS) 副所長
- 리차드 케슬러 : 美上院 外交委員會 東아시아 - 太平洋 小委 補佐官
- 김 수 영 : 북한 김일성대학 경제학교수
- 김 혁 철 : 북한 국제관계대학 국제정치학교수
- 폴 크라이스버그 : 카네기 평화재단 前任研究員
- 가리 레드야드 : 콜롬비아대학교 東아시아學 教授, 韓國研究所長
- 스테판 린튼 : 콜롬비아대학교 韓國研究所 研究委員
- 로버트 매닝 : 國防部 國際安保擔當 次官 諮問役
『Gorbachev's Asian Policy: The New Soviet
Challenge in the Pacific』의 著者
- 에드워드 C. 마이어 : 前 美合參議長
- 다릴 플링크 : 해리티지財團 아시아연구센터 客員연구員
- 알란 롬버그 : 外交關係委員會 아시아연구소장
- 유 길 응 : 北韓 國際關係研究所 研究員
- 레오나드 스펙터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員
『The New Nuclear Nations』의 著者
- 리차드 스틸웰 : 前 유엔軍 및 駐韓美軍司令官

읍 서 버

- 데이빗 그리스 : 美 CIA 國家情報委員會 副委員長
- 모르간 콜리핑거 : 美 CIA 職員
- 토마스 H. 딘롭 : 國務部 韓國課長
- 마크 피츠페트리 : 國務部 北韓擔當官

北韓과의 對話

目 次

序 文

參 加 者

I. 概 觀	3
II. 軍事的 緊張緩和	7
III. 統一의 可能性	17
IV. 經濟協力	31
V. 過去와 未來	39

* 附 錄

A. 美國務部 副次官補 『윌리엄 클라크』의 下院 아시아·太平洋小委員會 聽聞會 證言 (1989.6.26)	51
B. 北韓의 段階的 美軍撤收 및 北南 相互軍縮提案 (1987.7.23 및 1988.11.7)	54
C.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1980.10.10) ...	60
D. 金大中總裁의 『共和國聯邦』 統一案	70
E. 盧泰愚 大統領의 7.7 宣言 (1988) 및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 (1989.9.11)	72

F .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副委員長 김영남의 『民族統一 協商會議』 제의 (1989.9.28)	80
G . 南北關係 및 統一問題에 관한 『해리슨』과 황장엽의 對談	86
H . 北韓 國際問題研究所 副所長 김종수의 開會辭	88
I . 美國務部 韓國課長 『토마스 H. 던롭』의 午餐辭	100

I. 概 觀

1988년 12월 6일 북경주재 미국대사관의 政治參事官은 북한측과 처음으로 公式的인 接觸을 가졌다. 이후 3차례 (1989.1.28, 2.24, 5.15)의 會晤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非公開 接觸은 과거에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회피한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네번의 만남에서도 可視的인 成果는 없었다. 美國務部 한 官吏는 『이 만남에서 양측은 과거 그들이 표명했던 입장들만을 反復했을 뿐이며 出發도 못한 상태』라고 말하였다. (부록 A 참조)

북한은 그들이 1987년과 1988년에 제의한 軍縮案(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남북한 상호군축을 연계)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부록 B 참조) 미국은 먼저 南北韓間에 直接對話 및 信賴構築 措置가 先行되어야 軍備統制協商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외교관 접촉은 북한인의 미국여행 규제조치 완화 및 인도주의적 무역허용과 때를 같이하여 이루어졌다.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북한에게 요구하면서 미·북한 대화는 ①韓國戰爭 당시 美軍失蹤者(MIA) 遺骸 送還 措置 ②실질적인 南北對話 進展 ③對美 誹謗·中傷中止 ④軍事訓練의 通報 및 參觀을 포함한 緊張緩和 措置의 실질적 진전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될 것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국제테러지원 문제도 相互關係正常化 이전에 만족스럽게 다루어져야 함을 재삼 강조했다.

이 워싱턴회의는 워싱턴과 평양사이의 오래된 외교적 停滯로 인해 상호 인식과 태도의 뿌리깊은 갈등만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측 참가자들은 미국이 군축문제를 논의하길 꺼려한다면 미국의 장기적인 정

책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 할 것인가? 아니면 美國防部는 駐韓美軍을 反蘇 東아시아 戰略의 必須要素로 간주하고 있는가? 많은 미국측 참가자들은 『먼저 조그만 일부터』(Small Steps First)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다.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상황을 볼 때 북한이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북대화에 성실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미국과 서울이 軍備統制協商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동 심포지움에서는 또 정치·군사적 문제가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한국전쟁으로부터 파생된 불신의 악순환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북한측이 말하듯이 『信賴構築』은 기본적으로 統一問題와 關聯되어 있다. 서울의 統一意志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북한측 참가자들은 『먼저 조그만 일부터』라는 미국측 제안이 한국의 分斷 固着化 企圖를 쉽게 해줄 뿐이라고 비난한다. 평양은 軍縮과 美軍撤收를 중심으로 한 協商議題 하에서만 『먼저 조그만 일부터』라는 것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이같은 점에서 『緊張緩和』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향한 필수적인 시작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조선』(One Korea)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먼저 한반도에서 영원히 군사적인 대결을 종식시킬 포괄적이면서 의미있는 군축조치에 관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과 서울은 南北軍縮과 美軍撤收에 반대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개의 조선 및 분단을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동 심포지움은 緊張緩和 措置를 토의함에 있어서 美軍撤收에 관한 協商 可能案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地平을 열었다. 미국측 참가자들은 北

韓의 軍縮提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많은 사람들이 國務部 政策을 지지하거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한편, 일부는 평양의 제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 참가자들은 평양의 제의에 대해 중요한 修正案들을 내놓았다. 특별히 미군철수와 상호 감군조치가 진행될 초기에 북한군을 38선으로부터 후퇴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리고 북한이 1988년에 제안했던 3년期限보다 좀 더 긴 시간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북한측은 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향후 美·北韓對話에서 이 두가지를 좀 더 논의하자고 하였다.

統一問題와 관련해서 모든 미국측 참가자들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안(聯合軍 및 南北自治地域政府 構成)의 實現 可能性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였다(부록 C 참조). 그러나 일부 미국측 참가자들은 두 주권국가의 制限된 聯邦(Limited Confederation)을 주장한 한국의 金大中案이 협상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이 안은 各 地域自治政府가 각각 독립된 군대와 외교정책을 보유하지만 점차 보다 큰 권력(특히 對外關係)을 聯邦國家에 移讓하는 방식이다. 북한측은 그들의 통일방안이 현실적이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金大中案을 신중히 다루면서, 고려연방제에 대한 남한정부의 無反應과 비교해 볼 때 聯邦의 概念을 受容하고 있으므로 고려해 볼만한 안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움에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것은 平和統一을 追求하는 基本方式에 대한 각각의 인식차이었다.

北韓은 南韓政府側과 反政府 勢力을 區分하면서, 통일을 위해 全國民의 意思를 망라하기 위해서는 政府水準과 非政府水準에서 동시에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정부가 계속해서 모든 접촉

을 통제하고 제한한다면 북한은 남한의 통일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현재의 대화자체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미국측 참석자들은 평양이야말로 전체주의 사회로 모든 대화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남한정부의 허가없이 반정부인사를 초청하는 등 二重基準(double standard)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89년 3월 文益煥牧師의 訪北은 바로 그러한 二重基準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치 북한이 남한의 통일외지를 의심하듯이, 평양의 각종 統一追求 戰術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결국 聯邦案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사회, 경제, 정치체제의 통합을 위해 相互尊重 概念에 기초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文益煥事件같은 것들을 볼 때 북한이 연방에 관한 協商을 단지 남한을 정치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모든 것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사이의 의미있는 교류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 심포지움에서 제시된 쟁점에 대해 미국인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북한과 미국이 軍事的 緊張緩和에 관해 논의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統一問題나 북한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부분은 요점만 부각시켰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보고서는 심포지움동안 뿌리깊은 『不信』의 문제에 관해 상호 교환된 내용을 모으고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軍事的 緊張緩和

북한은 1987.7.23 軍縮提案에서 주한미군철수와 연계된 남북한 군축을 4년동안 10만명 수준으로 하기 위해 北韓, 韓國, 美國의 外務長官間 3者會談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또 1988.11.7 제안한 『포괄적 평화방안』에서는 3년의 時間表를 제시하면서 각 단계별로 추진될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同 3年の 기간중 처음 1年末에 남북의 병력은 40萬名 線으로 감축될 것이다. 첫단계에 미국은 지상군과 핵무기를 북위 35도 30분 이남의 부산-진해界線으로 철수하기로 되어있다.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南北兵力은 25만명 수준으로 감축되며 美地上軍과 핵무기는 한국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 남북병력은 각기 10만명 수준으로 감축되며, 美海·空軍 역시 한반도에서 철수한다. 두개의 제안 모두 판문점의 중립국 감독위원회(폴란드, 체코, 스웨덴, 스위스)의 檢證事業을 포함하고 있다. 1988년 제안의 경우 평양-서울간 그리고 평양-워싱턴간 회담이 3者會談의 틀속에서 개최되도록 되어 있다.

북한측 참가자가 1988년案을 개략설명하자, 한 미국측 참가자는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협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미국측 참여강조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北韓 :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남조선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당신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미군이 철수하면 동시에 우리들도 減縮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바로 당신들의 두려움을 덜고, 우리 모두의 짐을 더는 일이 된다.

당신들의 군대가 朝鮮半島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지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군이 당신네 미국땅의 절반을 점령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애국적인 미국인들이 그들과 협상하겠는가? 외국인들이 와서 당신의 나라 반쪽에 핵무기를 갖다 놓았다고 생각해 보라. 당신들은 어떻게 느끼겠는가?

당신들이 우리들을 의심하듯이, 우리들도 당신들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현재의 이 어려운 對決狀況을 끝내기 위해서 과거를 잊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戰爭이란 偶發的인 事故에 의해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 : 나는 당신들이 미국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남한과의 관계라는 더 넓은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緊張緩和는 南北韓 政府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나는 남북 양측이 조그마한 일부터 접촉하고, 교류하고, 대화해서 상대방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신뢰와 이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생존의 방패인 軍縮과 外軍撤收問題가 진지하게 협상될 수 없다고 본다.

北韓 : 물론 統一問題에 관한 한 조선인 스스로에 의해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도 조선문제에 군사적으로 깊숙히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軍事的 緊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미국이 조선반도에 깊이 개입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양국가간에 우정을 돈독히 하고, 무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이런 문제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북한측안에 대한 미국측 참가자들의 反論 중 제일 큰 것은 북한측이 남북한의 兵力再配置에 수반되는 세부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美軍撤收만 강조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의 역할이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미국측 참가자는 그의 제안중 매우 좋은 점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있다고 언급하였다.

美國 : 남북한의 군축은 미군철수를 정당화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북한군이 非武裝地帶로부터 철수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전에, 전진배치된 미군이나 핵무기가 첫단계에서 부산-진해 계선으로 철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가 많다고 본다.

미군의 前進配置는 북한의 전진배치무력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데에 본질적이라고 본다.

미국측 참가자들은 나중에 이 점을 더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相互兵力을 감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군부대 일부를 재배치한다면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말하였다.

美國 : 우리는 우리의 핵무기를 즉각 철수할 수 있다. 주한 핵무기는 作戰効用도 없으며, 그것의 抑止價値 역시 매우 의심스럽다. 다음 단계는 非武裝地帶를 따라 배치된 보병 제 2사단을 철수하는 일이다. 병력도 많고 군사적·경제적으로 강한 한국에 있어서 2사단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우리들은 引繼鐵線(trip wire) 방식에 의한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해·공군부대와 소규모 지상군만 남겨 두면 된다. 나

는 남북의 군사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부대를 철수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알고 싶다.

이 질문에 대해 북한측 반응은 분명하지 않았다.

北韓 : 당신께서는 미군철수에 관해 매우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했다고 본다. 물론 우리로서는 현재 그것에 관한 具體的인 措置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어떠한 경우든 당신이 제시한 것처럼 美軍撤收 方向으로 움직인다면 그것 자체가 성과가 있는 것이다.

미국측 참가자들의 토론 후에 한 북한측 참가자가 보다 적극적인 발언을 하였다.

美國 : 그것에 관해서 한마디 한다면, 우리 참가자들은 미국의 不介入 政策에 대해 美議會나 行政府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인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는 결코 없다.

여기서 제시된 案이 미국정책을 대변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실수일 것이다.

美國 : 핵무기 및 지상군 철수에 관한 그 제안이 미국의 협상 입장을 예시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미국의 조치를 예시한 것인지 알고 싶다.

美國 : 나는 미국이 南韓側과 協議하여 취할 지혜있는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한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美國 : 당신은 그것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가?

美國 : 바로 그것이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묻고 있는 것이다.

北韓 : 나는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司會者 : 그의 질문요지는 『만약 美國이 海・空軍을 남겨두고 지상군을 철수한다면, 북한은 休戰線으로부터 그들 兵力을 撤收할 용의가 있는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질문이면서도 중요하다.

北韓 : 나는 군사령관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세부적인 것은 - 얼마만한 군대가 언제, 어떻게 철수하느냐 등 - 협상이 진행되어 가면서 토의될 문제이다.

잠시 후에 북한측 참가자는 더욱 구체적인 표현을 했다.

美國 : 미군이 철수하기 전이라도 당신들은 한국과 군축규모, 배치 등에 관해 토의할 의도가 있다고 얘기한 사실에 나는 주목코자 한다.

北韓 : 내가 말한 것은 駐韓美軍撤收와 北南軍縮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司會者 :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기한 북한군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군축 뿐 아니라 만약 미군이 당신 제안대로 철수한다면 북한군이 非武裝地帶(DMZ)에서 얼마나 멀리 再配置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北韓 :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단지, 원칙은 우리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면 동시에 움직일 준비가 되어있다. 아마 最善의 方法은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토론회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다른 미국측 참가자는 1987년과 1988년 제안을 비교하면서 相互 兵力縮小와 美軍撤收사이의 연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고 언급했다.

美國 : 1987 年案에서 두 요소는 매우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보면 『남북한의 병력이 각기 10 만으로 될 때 미군철수는 완료된다』는 것이다. 1988 年案에 그것은 同時性 (Simultaneity)에 대해 얘기 했지만 連繫性 (Linkage)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당신은 미군철수와 한국병력 감축을 명백히 연계시키려고 하는가?

北韓 : 당신들이 우리의 두번째 제안이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대해 놀랐다. 나는 그것이 觀點의 差異때문이라고 본다. 누가봐도 두번째 것이 더욱 포괄적이면서 명확하다고 얘기할 것이다.

전반적인 생각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正式對話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美國 : 1987 年案은 협정사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1988 年案은 분명하지 않다.

北韓 : 아니다. 나는 두번째案이 더욱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3자회담을 통해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을 토의해야 한다.

세부적인 것을 말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들 사이에서 토의되어야 한다. 한번 협정이 체결되면 무엇인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계속 停滯될 뿐이다.

일부 미국측 참가자들은 北韓軍縮提案의 3 年時間表가 너무 짧다고 비판했다.

美國 : 당신네 제안은 진지하게 토론해 볼 만 하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볼때는 너무 문제가 많다. 예를들면, 양측이 어느 정도의 병력을 무장하는 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時間表도 너무 낙관적이다. 그리고 實質減縮이 시작되기 전에 兵力數를 檢證하는 初期段階가

있어야 한다.

北韓 : 내 주관적 의견은 그 時間表가 짧으면 짧을 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대결은 주관적 희망에 따라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물론 시간표는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共同의 目標에 우리가 同意하느냐 이다. 일단 목표에 동의하면 세부적인 일에 동의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美國 : 당신이 제시한 시간표는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른 편이다. 우리들은 보급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시간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군철수를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의미있고 현실적인 시간표를 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미국은 경솔하게 철수하지 않으며 한반도 및 東北아시아의 全般的인 軍備統制計劃(Overall Arms Control Scheme)의 일환으로 철수한다는 사실을 북한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北韓 : 우리에게 있어서, 駐韓美軍撤收 目標은 原則의 問題이고, 主權의 問題이다. 시간은 방법의 문제일 뿐이며 세부적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원칙에 합의한다면 시기문제는 토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양측의 무장병력 숫자문제가 논의되었다.

美國 :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당신들이 말하는 15만 병력이 제대한후 건설현장에 배치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냐는 것이다.

그들은 軍事的 目的으로 재배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군사조직』(Military Organization)이란 무엇인가? 누가 군인이고 누가

아닌가? 이같은 문제들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美國 : 나도 역시 이 『建設要員』이라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다. 가장 代替可能性이 높은 軍事力은 『技術』系統일 것이다. 技術者가 平時에 하는 것은 戰時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좀더 전문가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北韓 : 外部로부터의 侵略을 제외하곤, 우리가 건설현장으로 제대시킨 군인들은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은 15만명이 平和的 建設에 임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당신들은 그들이 서해갑문, 운동장, 발전소, 극장, 주택건설장에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案은 양측의 戰鬥兵力解體를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들은 계교를 꾸미는 것이 아니다.

무장병력이 얼마인가에 동의하기 어려운 사실을 고려하여 한 미국측 참가자는 남북의 兵力構造가 攻擊的인 데에서 防禦的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國 : 우리들은 兵力再配置에 관해서는 벌써 전에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일부에 불과하다. 北大西洋 條約機構(NATO)의 일반적 예를 들면, 협상은 병력감축 뿐 아니라 탱크나 砲같은 重武器의 柔軟性과 移動性 그리고 파이프라인이나 다리건설장비같은 下部構造(Infrastructure)도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숫자 높음은 相互均衡減軍(MBFR) 協商이 失敗하는 주요 요인중 하나였다.

美國 : 우리들은 지금 유럽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安全地帶』(Zones of Stability) 概念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궤도이탈한 장갑차를 추적한다거나, 장갑차를 통제하고 관찰할 수 있는 補給支援地帶(Logistical Support Zone)에 놓는다든지 하는 것도 가

능하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信賴構築措置(CBM)이다.

美國 : 나는 비무장지대의 南北合同巡察, 雙方軍事訓練 參觀 등의 信賴構築措置(CBM)를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된다.

北韓 : 우리도 信賴를 構築하기 원한다. 우리들은 많은 제안을 했지만 이것들은 다 소용없었다. 왜냐하면 남한측이 문목사 체포에서 보듯이 분단을 고착화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남한측이 다음번에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11.8 提案을 본다면, 거기에는 非武裝地帶에서의 擴聲器 放送禁止, 중립국감독위 감시에 의한 非武裝地帶의 平和地帶化, 直通電話設置 등 信賴構築措置로 가득차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동순찰 등과 관련해 우리들은 군사적 대결을 끝내는 것에 대해 논의할 세부사항들이 많다. 물론 군사훈련이 남쪽에서 계속되고 있는 한 이것은 어렵다. 외국군이 조선의 영토위에서 훈련하는 것은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같은 훈련에 참관자를 파견할 수 없다. 우리가 참가하면 마치 그것이 정당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 버리지 않는가. 또 양측은 타방에 대한 機動訓練을 中止해야 한다.

미국측 참가자들은 북한의 核開發計劃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현했다. 그리고 핵시설을 國際原子力機構(IAEA)에 보여주어 査察받는 것이 중요한 信賴構築措置라고 강조했다.

美國 : 북한은 核擴散禁止條約(NPT)에 가입해 놓고 아직까지도 査察을 받지 않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査察을 받지 않은 영변의 원자로 및 플루토늄처리 시설이 작동중이거나 작동될 것이라고 한다.

동 條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이며 왜 사찰을 받고 있지 않는지 말해달라.

北韓 : 조선은 조그만 나라이고,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을 非核地帶化 할 것을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다. 우리는 왜 남조선에 1천개의 核武器가 存在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核에너지計劃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고, 原子力 發電所를 건설해서 經濟를 發展시키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다. 사찰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른다. 나는 IAEA 사찰 요청이 왔는지 안왔는지, 그리고 거부됐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

美國 : 당신은 그것을 미국 핵무기와 연계시키는가? 말하자면, 당신은 IAEA 査察이 실시되기 전에 미국의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北韓 : 우리들은 核武器가 언제 철수되는지를 알고 싶다. 그런데 남조선에 있는 核武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데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核武器 撤收와 우리 核施設 査察과는 연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은 전적으로 평화적이기 때문이다.

Ⅲ. 統一의 可能性

부시大統領은 1989년 2월 27일 한국국회연설을 통해 『한국국민에게 수용될 수 있는 조건』 (on terms acceptable to the Korean people) 하에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의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한국의 統一理想에 대해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것은 미국이 그 자체의 戰略的 理由로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는 비난을 종종 받고 있는 남한에서 최근 통일논의가 고조됨에 따라 직접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그 조심스런 어구로 볼 때 부시大統領의 동 선언은 1972년의 上海共同聲明 - 臺灣海峽 兩側의 全中國人이 中國은 하나이며, 臺灣은 그 一部임을 주장하는 것을 미국은 『認定』 (acknowledge) 한다 - 을 생각나게 한다.

1988년 2월 국회의원 선거후 노태우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널리 허용함에 따라 統一論議가 폭넓게 확산되었다. 노대통령은 7·7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몇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 선언에는 美國, 日本이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남북한의 무역을 關稅없는 內部交易으로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부록 E 참조) 남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盧대통령의 선언은 대단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1987년 승객 115명의 생명을 앗아간 KAL 858機 空中爆破事件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남한에서의 統一論議의 自由化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의 분위기 속에 南北國會會談 및 盧泰愚 - 金日成 頂上會談을 시도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 예비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文益煥목사와 야당국회의원의 정부허가 없는 秘密訪北과 그에 따른

구속등으로 인해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남한의 통일논의에도 제한이 가해졌다.

북한의 聯邦制(Confederation)* 案은 남북의 人口隔差(南: 4,277 萬名, 北: 2,198 萬名)에도 불구하고 同等한 代表權을 부여하고, 남북의 현 정치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南北同數代表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들로 聯邦會議(Confederal Assembly)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남한정부는 인구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南北韓 自由總選舉를 통해 통일한국의 의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통일로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체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1989년 9월 11일 盧대통령은 한민족공동체(Korean National Community) 또는 南北聯合(Korean Commonwealth) 통일방안을 발표했다.(부록E 참조) 새로운 통일방안은 20명의 閣僚會議(Council of Ministers), 100명의 評議會(Council of Representative), 그리고 비무장지대내 共同事務處(Joint Secretariat)를 설치하는 등 相互 同等原則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를

*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 안을 『Proposal for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로 부르고 있으며, 단순히 高麗聯邦制를 지칭할 때도 Confederation 을 사용하고 있음. 번역도 편의상 『연방』으로 하였음. 그리고 金大中 平民黨總裁의 『共和國 聯邦制』도 영어 『Proposal for a Confederation of Korean Republic』로 표기됨에 따라 共和國 聯邦制, 혹은 聯邦制로 번역하였음. (譯註)

통한 민주공화국으로의 국가통합을 상정하고 있으며 통일국가는 인구 비례에 의한 下院을 두는 등 兩院制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두개의 서로 다른 체제의 상호공존을 가정하는 北韓側 案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외교부장 김영남은 남한측에 유화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1989. 9.28 高麗聯邦制(Confederal Republic)가 최선의 통일방안이 된다고 확신하지만 『서로 화해하고, 존중하며 양보하는 입장에서 다른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며,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누구의 것이든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부록 F 참조)

한국의 南北聯合案(Korean Commonwealth)과 달리 金大中 案은 고려연방제의 기본원칙 - 양측의 동등대표 - 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 金大中案의 더욱 중요한 것은 두개의 연방단위가 각각 자신의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金大中의 共和國聯邦制(Confederation of Korean Republics)는 북한의 연방공화국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수십년간 서로 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聯合過程(Confederating Process)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 세미나는 盧泰愚大統領이 『한민족공동체』방안을 발표(1989.9.11)하기 3개월 전에 열렸다. 그러나 김대중안에 대한 토의내용에는 南北聯合案이 제기한 많은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동 심포지움은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통일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칙들을 먼저 깊이 다루었다. 한 미국측 참가자는 文목사 구속 이후 북한의 대화결렬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다

뿐 아니라 여야 정당지도자들도 초청했다.

물론 文목사만이 우리한테 왔다. 우리는 그와 완전 합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장벽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행동을 애국적이라고 평가한다. 만약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대담한 행동을 환영해야 한다. 앞서 질문하신 분의 내용을 들어보니, 마치 우리가 남조선의 공산혁명을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조선이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것에 현재도 관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司會者 : 그의 질문요지는 북한이 남한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지 아닌지에 있다.

北韓 :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들은 북남대화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정부차원의 대화 역시 그러하다.

美國 : 당신들은 남한에서 共產革命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건전한 판단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현재 南韓의 政治的, 經濟的 狀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 미국인들이 보기에 남한에는 최소한 1987년 이래로 그전의 정권들보다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받는 민주적인 정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내 말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남한을 끊임없이 불안한 나라로 보는가? 어느 쪽인가?

北韓 : 남조선이 매우 불안한 사회인지 아닌지를 말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단지 남조선 인민들의 경향이 더욱 더 民主主義와 祖國統一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美國 : 그렇다면 당신은 남한이 더 安定的이라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不安하다고 보는 것인가?

北韓 : 물론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른다. 남조선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남조선에는 與野黨間, 청년학생과 정부間에 복잡한 관계가 있다. 李承晩정권때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얘기했으나 학생들은 정부를 타도했으며, 朴正熙의 경우 그는 죽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남조선의 정치발전은 청년학생을 포함한 全人民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남조선에 공산혁명을 일으킬 의도도 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美國 : 현재 한국정부를 민주적이라고 보는가?

北韓 : 남조선이 민주화로 간다고 말들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들은 민주화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에 대해 우리는 매우 회의적이다.

美國 : 최근까지 나는 남한의 상황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놀라고 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反政府人士들을 가두기 위해 國家保安法을 이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역시 緊張緩和와 統一에 좋지 않다.

司會者 : 현재의 남한정부와 협상을 하여 緊張緩和와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현 정부를 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것은 기본적인 쟁점이다.

北韓 :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금년(1989년) 4월에 우리 지도자께서 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盧대통령을 초청했다. 우리들은 남쪽 당국과 대화하려고 한다. 어떻게 내가 이 政府(南韓)가 얼마나 오래 계속될런지, 언제 崩壞될런지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런지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美國 : 현재 남한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현 정부를 合法的이라고 보는가?

北韓 :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좀 긴 歷史를 말씀드려야겠다.

美國 : 나는 전후 역사를 반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총체적 견해를 말해 달라. 우리들은 意見을 交換하기 위해 여기 있지, 역사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견해를 반복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北韓 : 원래 서울의 정부는 國民意思에 反하여 1948. 5.10 總選을 치렀다.

현 정부는 그 당시 정부의 延長일 뿐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당신과 우리사이에 그렇게 큰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평화와 分斷終熄을 위해 서울의 정부측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남조선 정부의 正統性을 논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한 북측 참가자는 統一에 대한 北韓의 基本態度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北韓 : 우리나라의 緊張緩和와 統一은 서로 별개로 논의되어질 수 없다. 우리들은 外部勢力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되기 전까지 5천년 동안 통일된 민족사를 갖고 있다. 우리들이 분단되어 사는 것은 민족적 비극이다. 당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들은 우리가 共產主義者들이고 남쪽은 아니다라는 것만 항상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共產主義者와 民族主義者의 선택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민족이 없다면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물론 우리들은 共產主義 思想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는 民族的 理想에 優先順位를 둔다.

이러한 北側 答辯에 따라 歷史的 觀點差異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美國 :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분단이 일차적으로 外部勢力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며, 韓國政府 리더십의 質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敎訓이 되고 있다.

北韓 : 우리 나라가 내부요인에 의해 분단된 것이 아니라 外部要因에 의해 분단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에 우리의 봉건지배자들은 強大國의 하수인들이었다. 그 強大國들이 우리나라를 일본의 植民地로 넘겨 주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 분단이 계속된다면 다시 외부세력에 의해 犧牲될 것이라는 것이다.

民族統合의 基本目的은 民族的 主權을 實現하는 일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聯邦共和國(Confederal Republic)은 어떠한 외부세력의 위성국이 아니다. 그것은 獨立的이고 非同盟이며 中立적이다. 그것이 우리 案의 根本思想인 것이다.

美國側 한 참가자는 북한의 統一案을 非現實的이라고 평가하면서 단지 聯邦制 接近(Confederation Approach)방법은 올바른 지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北韓의 황장엽 노동당 중앙위비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高麗聯邦制에 대한 代案으로 金大中的 '制限된 聯邦案(Limited Confederation)'을 제시했다.(부록G 참조) 의미있는 일은 이러한 일련의 미국측 참가자들의 비판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매우 유화적이었던 것이다.

美國 : 당신 제안의 많은 것들 - 특별히 聯合軍(Unified Army)의 概念 등이 매우 비현실적이다. 金大中案은 초기에는 각각 주권을 유지하다가 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더욱 더 많은 권력을 갖는 聯邦機構(Confederal Structure)를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연방기구는 교류, 무역, 상호감군 등의 틀을 제공한다. 그것은 통일의 이름아래 『조그만 일부부터 먼저』(Small Steps First) 하자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北韓의 황장엽은 『만약 우리가 두개의 조선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연방(Confederation)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당신들은 우리가 매우 신축적임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金大中案이나 다른 어떤 案이든지 연방을 향하는 것이라면 비록 점진적이라 할찌라도 이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평양에서 나에게 말하였다.

그는 또 『원칙상 聯合軍은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남북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두개의 군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1987년 황장엽의 말처럼 당신들은 金大中案을 논의할 용의가 있는지, 혹은 당신의 의제를 1980년 高麗聯邦制 범위내에서 논의하려고 하는지를 묻고 싶다.

北韓 :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자세히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한가지 점만은 분명히 밝혀 두고 싶다. 즉, 조국통일을 위한 것이라면 연방을 위한 어떠한 제안도 토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美國 : 당신은 金大中案이 實際的이라고 생각하는가?

北韓 : 그렇다. 그것은 聯邦共和國(Confederal Republic) 구성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 : 하나의 共和國聯邦(A Confederation of Republics)이다.

北韓 : 그렇다. 연방(Confederation), 그러나 우리는 두개의 공화국은 수용하지 않는다.

美國 : 우리는 金大中案이 두개의 獨立的이면서도 相互 認定된 共和國의 聯邦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前 첫번째 단계는 북한공산주의체제가 남한에 의해 獨立政府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점이다.

그래야 양측이 聯邦問題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들을 파견할 수 있다.

北韓 : 우리가 제안한 것은 서로 다른 공화국들이 아니라, 오히려 地域的 自治制(Regional Autonomy)이다. 두개의 自治地域을 갖고 있는 하나의 國家(State)를 말한다. 그러나 김대중이 제안한 것은 두개의 다른 공화국의 연방이다.

거기에 차이가 있지만 연방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그 점이 내가 토의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다.

美國 : 김대중案은 하나의 한국(One Korea)원칙을 견지하지만 사실은 두개의 獨立共和國으로 이루어진 기구를 상정하고 있다. 그가 장래의 共同外交(Joint Diplomacy)를 一 共同의 立場을 위해 노력하나, 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一 언급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신의 문제에 대해 제기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제안(북측案, 김대중案)의 중대한 차이점을 주시해야 한다.

북측案은 信賴의 基礎를 『要求』하는 것이고, 金大中案은 신뢰를 『構築』하기 위해 設計되어 있다.

美國 : 신뢰구축을 위한 북한의 여러가지 제안들이 실질적으로는 두개의 한국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나의 기초적인 문제의식이다.

그러므로 나는 金大中案이 매우 의미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북한이 『조그만 일부터 먼저』라는 것을 수용할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美國 : 나는 金大中案을 읽으면서 그것이 김일성의 제안과 완전히 적대적인 것을 알았다. 北側案은 聯邦常設委員會 (A Confederal Standing Committee)를 상정하고 있고 그것이 모든 집행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북한의 單一構造와 남한의 多元構造를 생각해 볼 때 누가 중국에 가서 常設委員會를 掌握하게 되는지는 명백한 일이다.

金日成의 聯邦國家는 政黨結成의 自由, 宗教·言論·集會의 自由, 그리고 모든 分野의 政治·社會的 行動의 自由를 保障한다고 하는데 현재 北韓의 狀態는 어떻다고 보는가?

北韓 : 현재 북한은 그러한 自由를 다 保障하고 있다.

美國 : 나는 지금 우리들이 『不可能한 可能性』에 대해 너무 추상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共和國이나 聯邦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분단된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나 안보면에서 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한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또한 바로 지금 두개의 모순되는 부분도 갖고 있다. 남북한 사회가 공통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북한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獨逸모형을 한국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美國側 참가자의 이러한 제시에 대해 북측 참가자들은 반박을 하였고, 일부 미국측 참가자들은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美國 : 현재 南北韓社會의 차이를 보면 統一을 期待하는 것은 數世代가 지나기 전에는 어려운 일 같이 보인다. 당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민족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쉽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하나의 조국이라는 것이 부인되지도 않으며, 비록 동독인이 원리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점에서 새로운 독일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은 스스로 全獨逸人이라는 인식하에 境界線을 넘어서 무역, 문화, 재정관계 등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

北韓 :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당신에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분단과 독일의 분단과는 차이가 있으며 통일을 향한 태도도 다르다.

독일은 두번이나 전쟁을 일으켰고, 2차대전에서 패하여 그 결과로 분단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독일과 다르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며, 植民地狀態였다가 강제적으로 분단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獨逸民族은 두개의 다른 국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북이나 남이나 통일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

美國 : 당신이 1 민족 2 정부를 말할 때 그것이 우선 처음에는 金大中 씨 案과 같은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金大中 案은 『하나의 한국』을 표현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構造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네들 주장과는 다르다.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있지만, 회의에서는 일부 강대국의 태도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美國 : 최근 남한이 당신들의 전통적인 우방인 소련과 체코, 헝가리, 심지어 중국과 外交關係를 맺으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한이 외교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당신들의 전통우방과 대탕뜨 및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는 것에 대해 당신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는가?

北韓 : 우리는 통일이 빨리 되기 원한다. 그리고 당신들의 도움을 환영한다. 남한과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사회주의 이웃들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지지했고 앞으로 계속 지지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말을 신뢰한다.

* * * * *

美國 : 40년이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언어, 문화, 역사적 뿌리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민족에 커다란 경의를 표한다. 5천년 동안 그들은 民族的一體性(Identity)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세계 2차대전 이후 民族解放의 소망이 分斷으로 변하였다. 늙은이로서의 내 희망은 이 민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하는 일이다. 당신들은 어렵겠지만 먼저 북한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6천만 한 민족의 통합에 따른 여러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北韓 : 당신이 우리 朝鮮民族은 同質的이므로 통일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말을 해 준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사이에 이해를 더욱 돈독히 하며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현실(reality)이 더욱 더 정확하게 미국에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다.

美國 : 우리들이 오늘 이것 저것 얘기하고 있을 동안 화성으로부터의 방문자는 『아니, 이 사람들은 아무것에도 합의를 못 보았잖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韓半島 統一의 重要性에는 동의하고 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美國 : 내 견해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재통일을 바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美國 : 나는 모든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 것이다.

Ⅳ. 經 濟 協 力

50년대와 60년대에 북한은 광범위한 産業 下部構造를 건설하면서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것은 외국의 기술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련·동구 및 중국의 원조로 달성되었다. 평양이 자립을 강조하여 외국의존을 최소화하려는 『주체』의 정책은 서울이 大規模 外資導入 및 外國合作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것이다.

북한의 시각으로 보면, 남한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일본과 미국에게 그의 미래를 저당잡혔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이익을 배반한 것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수십년동안 산업시설을 현대화할 필요를 인식하고 『주체』의 가치를 계속 올린 채 對外經濟政策에 수정을 가하였다. 평양은 對外經濟關係를 多邊化하면서 중국과 유사한 合營法을 채택하고 수출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었다.

國際聯合 開發計劃(UNDP)이 1987년 年例 報告書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현재 기초적인 諸産業分野가 해외선진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므로 크게 저해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론잡지 『근로자』의 한 논문(1987.9)에서도 북한산업은 소비재공장 뿐 아니라 철도, 발전소, 기타 基幹産業施設들을 현대화하기 위해 세계의 과학·기술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쓰고 있다.

북한측 참가자들에 의하면, 『主體』의 정책은 미국이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 심지어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정부는 세계의 경제발전 추세에 맞추어 개방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한의 對外經濟協力 形態의 일부를 모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北韓 :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정책은 첫번째로 自主的인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초위에서 對外經濟協力を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식민지였음을 잊지마라. 우리는 황폐된 경제를 이어받았고 한국전쟁으로 피폐할대로 피폐해졌다. 우리들의 경제는 외국에 의해 정복당했다. 만약 우리가 자주적인 경제를 건설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외부경제협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처음에 사회주의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하였으며 미국을 포함한 많은 자본주의국가들은 우리의 전후 복구기간 중 매우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다.

자본주의국가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대해 禁輸措置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외경제협력관계를 원만히 발전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자주적인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1970년대 이래로 세계는 全世界的인 經濟關係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경제추세를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세계경제 발전추세에 발맞추어 그 문을 개방하고 있다.

우리의 稅法에 따르면 투자량과 형태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 私企業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특혜를 부여했다. 우리들은 심지어 과거 우리들을 적대했던 나라들과도 대외경제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나는 우리의 對美經濟關係가 장래에 발전되길 바란다.

美國 : 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북한의 대외관계 태도를 보고 놀랐다.

비록 북한이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에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분야는 무역이다.

당신들의 문제는 수출, 특별히 제조상품의 수출증대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일이다.

남한이 사용한 기초패턴의 하나는 注文生産制이다. 즉,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 팔기 보다는 외국바이어가 와서 「이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오」하는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북한은 마케팅, 재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기계와 제조방법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디자인까지도 배울 수 있다.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가격을 메기고 適時에 輸送하며 良質로 大量生産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점차로 독립을 유지하면서 서로간에 신뢰를 심으면서 合營投資를 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 : 당신께서 대외경제합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좋은 충고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합영사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나는 점은 우리가 自力更生을 추구하기 때문에 世界趨勢에 뒤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對外貿易側面에서 世界趨勢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

美國 : 내가 1987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있는 서독기업 레벡이 당신이 말한 도급형태로 남한에서와 같이 경영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1987년 한해에 거의 10만개의 女性衣類를 만들고 있었으며, 1988년에는 생산을 배로 늘릴 계획으로 있었다. 그러나 계획대로 상품을 수송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레벡회사의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남북의 제품 질을 비교해보면 북한쪽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가 느끼기에 5~6년

이 지나면 북한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의 질이 남한의 그것과 같이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재미있는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하였다.

일부 미국측 참가자들은 북한측이 經濟統計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美國 : 북한측이 단 하나의 통계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1988년 북한의 對外貿易量은 얼마인가? 그리고 1988년까지 合營實績은 어떠한가?

北韓 : 우리의 經濟發展에 대해 먼저 전반적인 전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매년 貿易總量을 공표하고 있다.

1985년에는 130억달러였고 1988년에도 큰 차이는 없었다.

合營企業은 지금 발효된지 3~4년 밖에 안되어 總額價値는 별로 크지 않다.

중국과 같이 우리들도 해외동포들과의 合營企業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西유럽의 기업센타들이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合營기업의 전망은 밝다.

美國 : 북한은 많은 經濟統計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不利益을 초래하고 있다. 北韓經濟成長率에 대한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추계는 연평균 3.5%이다. 나는 실제로 그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당신은 북한의 國內總生產(GDP)이나 經濟成長率을 말해줄 수 있는가?

北韓 : 우리들은 우리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公的 統計를 만들고 있지만, 일부는 公表하지 않고 있다. 어떤 나라도 公表하지 않는 統計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발전 정도를 알리는 자료는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고 믿는다.

美國 : 미국 경제학자들에게 퍼센트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 전반적인 국민소득 통계는 보다 많은 가중치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理念問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美國 : 사회주의 경제는 붕괴상태에 있으며, 성과도 없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소련, 동구 및 중국은 社會主義 體制의 本質的인 破産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자주적인 民族經濟를 주장하는 나라들은 국민경제가 잘 되지 못한 나라들이다.

북한경제를 위한 모델은 태평양 연안국가—즉, 태국, 홍콩 (특별한 여건이 있지만), 아세안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제한된 범위에서),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모델은 당신 이웃에 있으며, 그 모델은 90년대와 그 이후의 현실에 맞아야 한다. 당신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本質的으로 破産된 體制를 포기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民族自主經濟라는 이름하에 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北韓 : 경제적 난관에 관한 한 사회주의 국가도 자본주의 국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미국이나 일본같은 대국도 經濟危機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경제발전에만 관한 것이며, 또한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混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社會主義 國家의 經濟的 危機는 社會主義 體制自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당신

이 社會主義 體制가 원천적으로 경제발전이 되지 않는 나쁜 체제이며, 資本主義 體制는 경제발전이 잘되는 좋은 체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경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결코 타국가의 모델을 따르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우리가 合營企業을 발전시키기 원한다고 말할때 그것이 資本主義를 포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들은 이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사회주의로 나가려고 한다.

* * * * *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남북한은 經濟交流을 위한 회담을 5 차례 가졌다. 남한은 『垂直貿易』(北의 천연자원과 南의 제조상품교환)을 제안했고, 북한은 『水平貿易』(合作漁撈, 開發者의 장비를 이용한 천연자원의 상호 개발)을 제안했다. 평양측은 서울의 무역 및 경제관계접근을 통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리트머스 테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垂直的 原理에 의한 경제교류 제안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남한이 輸出指向的 製造業을 중심으로 經濟發展을 추구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존이 계속되면 동등한 입장에서의 통일이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南北經濟交流에 관한 觀點의 差異는 평양과 서울 사이에 意思疏通의 간격(Communication Gap)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다.

美國 : 당신이 말하는 外的指向經濟를 생각해 볼 때, 귀측과의 교역을 내부교역으로 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 노대통령의 7. 7 선언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당신들이 거론해 온 『두개의 조

선』주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는 평양으로부터 적극적인 反應이 없었던 것에 놀랐다. 왜 그랬는지? 合營企業을 남한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北韓 : 우리가 北南經濟合作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합작으로 북남이 똑같이 발전하기를 원한다. 무역측면에서 볼 때 북남이 두개의 국가인 것처럼 취급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측면의 무역을 포괄하는 合作을 주장해왔을 뿐 아니라 經濟的 問題에 관한 제안을 많이 해왔다.

美國 : 그러나 그것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북한과의 교역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內部交易으로 하자는 南韓側 提案에 대한 북한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北韓 : 바로 그 얘기를 하겠으니 말을 계속하게 해달라. 우리의 입장은 나라의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經濟合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北南經濟會談의 基調이다. 우리는 1960년부터 經濟合作을 위한 많은 제안을 해왔다. 당신이 제시한 질문에 관해 얘기하자면 남쪽과의 경제회담은 그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같은 회담을 계속하지 않았다.

美國 : 당신은 盧대통령의 선언을 실제적인 것이라고 보는가?

北韓 : 나는 그의 제안을 討議하거나 세부적으로 分析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美國 : 7.7 선언이 하나의 한국으로서 교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는 아직도 당신들의 그러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北韓 :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당신들은 남쪽에서 제시한 것을 『內部交易』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점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어느 한쪽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民族內部交易으로 규정해도 좋은가? 無關稅가 內部交易의 定義인가?

이러한 일은 완전히 個別國家間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美國 : 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얼마전에 이스라엘 및 캐나다와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했다. 당사국들은 그들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세는 없다.

美國 : 그의 질문은 무엇이 內部交易인가 하는 것이다. 단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內部交易인가?

당신은 그의 주장 - 각 국가는 타국가와 交易時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 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 : 그런 것은 내가 상관할 바 없고, 문제는 그것이 긍정적이나 아니면 부정적이나 하는 것이다.

V. 過去와 未來

어떻게 해야 이런 不信의 惡循環이 깨어질 수 있는가? 심포지움 기간동안 일관된 北韓의 主張은 다음과 같다. 『남한과 미국의 의도는 統一에 대한 姿勢 그리고 韓半島 非武裝化 協商態度에 의해 측정될 것이다』. 미국측 참가자들도 역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주된 의견은 『信賴性 있는 平和共存을 위해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한 태도의 한 예로, 평양은 韓國戰爭 當時의 美軍遺骸를 반환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측에 의해 제시되었다. 미국의 韓國戰 參戰勇士會는 현재 3,200명의 미군유해가 포로수용소(POW Camps)에 있다고 추계하고 있다. 최소한 1,200具는 즉각적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하나 수십년동안 유해송환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허사였다. 미국측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그 유해들이 美軍將星이 首席代表로 있는 軍停委를 통해 반환되어야 함을 주장해 온 한편, 평양측은 停戰協定上 그 문제 조항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면서 직접적인 외교접촉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1987년 11월 長津湖 戰鬪의 재향군인단체인 초신희(The Chosin Few)에 의해 한 協商이 거의 타결되었다. 당시 기업계 거물 로스페로는 私的 美國 代表團을 이끌고 판문점에 가서 다섯具의 확인된 미군 유해를 받아오기로 하였다. 그런데 합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KAL機 폭파사건으로 서울과 워싱턴의 반응이 경색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서 제재조치를 가함에 따라 遺骸送換 計劃은 取消되었다.

한 미국측 참가자는 유해문제가 心理的으로 重要하다며 북측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遺骸送環 問題가 잘 처리되면 미·북한관계가 폭넓게 향상될 것임을 언급했다. 軍停委를 통한 유해송환 방법의 대안으로 판문점에서 美國議員團에게 넘겨주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美國 : 1987년의 협상은 여러가지 불행한 이유로 좌절됐지만, 그때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 동료와 나는 가까운 장래에 3-4명의 美國議員團을 構成하여 판문점에 가서 軍停委와는 별도로 직접적인 협상을 할 계획이다.

만약 북한이 5구의 미군유해를 판문점에서 넘겨주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것은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그것은 상호간의 不信을 除去하고 각종 쟁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토의한 모든 것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기를 바란다.

北韓 : 이 문제에 관해서 나는 이미 적절한 사람들과 토의를 했다. 먼저 우리들은 1986년 2월의 軍停委會議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우리 제안은 당신측으로부터 當正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때 당신협회는 우리에게 미군유해를 찾아서 人道主義的 具地에서 넘겨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1987년 10월과 11월의 40여일 동안 美軍遺骸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한 결과, 5구의 유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판문점에서 당신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KAL기 사건으로 도중에 중단되어 버렸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신들이 제기한 것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계속적인 反美宣傳과 關係改善 希望은 兩立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토론이 있었다.

美國 : 내가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나와 얘기한 사람들은 모두 매우 공손하며 솔직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宣傳이나 적대적인 표현없이 매우 유익한 토론을 했다.

그런데 밤에 호텔로 들어와서 TV를 켜는데(특히 그날은 6월 25일이었다) 거기서는 反美敵對感을 고취시키는 프로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나는 앞서 나에게 말을 건네준 사람들의 솔직함과 TV로 2천만 북한사람을 자극하는 적대적 분노증 정말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를 자문해 보았다. 미국 관리들이 당신의 제안을 들을 때 그들은 바로 등 뒤에서 적대적인 말도 함께 듣게 된다. 그것은 바로 信賴의 問題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그리고 심지어 한국도 그와 같은 敵對的인 用語는 구사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들이 미국이나 한국의 오늘字 新聞을 5년이나 10년 전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적대적 표현이 줄어들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言論을 볼 때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어떤 방도가 있는가?

* 1990.5.28 北韓側의 이성호 최고인민회의 대외문화연락협회 부위원장 등 3명은 판문점에서 韓國戰 當時 美軍遺骸 5具를 美下院 援護 委員長 소니·몽고메리議員 등 美國側代表 4명에게 引渡하였음.

北韓 : 객관적으로 말해서, 우리 두나라가 다시 적이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우리들사이에 이러한 敵對的인 霧圍氣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기분을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워싱턴에서 받는 인상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해주시 않는 것 같다. 여기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다. 당신들도 아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

美軍偵察機가 우리 상공에서 정찰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緊張感을 느끼고 있다.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역시 우리 모두를 긴장케 한다. 우리들은 당신나라에 우리 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느낌이 다르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敵對的인 言辭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을 확신한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온 이유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 않았을 것이다.

韓國戰에 참전했던 일부 미국인들은 만약에 양측이 과거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않는다면 불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韓半島 平和에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측은 반박을 했다.

北韓 : 과거 44년동안 우리는 평화적인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南朝鮮을 侵略할 의도가 없다고 말해도 당신들은 믿지 않으며, 당신들이 남조선을 지키기 위해 거기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믿지 않는다. 사실 우리들은 남조선이나 미국에 의해 침략당할

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이 계속된다면 장래에 아무 것도 해결될 것이 없다.

美國 : 당신이 지난 44년동안 남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不信의 障壁이 39년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韓半島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討議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옳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좀더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옳다.

北韓 : 만약 우리가 계속 과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建設的인 對話는 不可能하다고 생각된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美國 : 어제 만찬에서 우리는 韓國戰爭의 紀元에 대해 토의를 가졌다. 당신들은 韓國陸軍이 全 戰線에 걸쳐 北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발발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이 전적으로 공격을 주도했고 북한의 대응은 반격일 뿐이라고 한다.

내가 보기에 매우 유용한 信賴構築措置는 韓國戰爭原因을 학술적으로 밝히는 것으로서 북한, 한국, 미국의 학자와 역사가들이 많은 자료를 조사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더 論爭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탁자 가운데에 놓인 그릇을 보고 당신네들은 뜨겁다고 하고 우리는 차다고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우리가 온도계를 가지고 그릇에 넣을 수가 있다면...

美國 : 역사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쉬우면 좋을텐데...

물론, 물을 그릇에 넣고 온도계로 재면 차가운지 더운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그것보다도 반쯤 찢거나 혹은 반쯤 빈 글라스 같
다는데 있다.

그것은 觀察者의 視覺에 따라 달라진다.

한 북한측 참가자는 偶發的인 戰爭의 危險性을 들면서, 1976년 비무
장지대내 미류나무 절단사건을 언급하자 또다시 歷史論爭이 일어났다.

北韓：-1976년 8월 18일 나무하나 자른 것이 일촉즉발의 戰爭
危機까지 몰고간 사건에서 보듯이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평화는 어느
때라도 깨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현재의 停戰協定을 더욱 안정된 협정으
로 대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시 미군이 軍隊를 動員해
서 우리를 위협했으나 다행히도 분쟁은 피할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제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美國：나는 당시 美軍作戰地域에서 지휘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8.18 사
건을 좀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은 共同警備區域內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미군이 동원된 것을마
치 전적으로 정당치 않은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나무자
르는 일은 북한군이 共同警備區域으로 들어가 두명의 미군장교를 살
해하기 아틀전에 시작됐다. 兵力을 動員한 이유는 1952년 이래로 그
래왔던 것처럼 북한의 攻擊可能性을 抑止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성공적인 대응이었다. 한국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防禦的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측 참가자들간에 한국의 緊張緩和의 國際的 및 地域的
의 與件에 관한 얘기들이 오갔다. 不信의 惡循環은 한반도 뿐 아니라 周
邊強國에까지 퍼지고 있다. 그러나 『東西關係의 變化를 고려해 볼 때
南北의 軍事的 對決은 하나의 時代錯誤 (anachronism)』라고 미국측
참가자는 말하면서 『김일성체제가 계속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스

쿠바와 북경에서는 리더십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美國 : 세계도처에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한반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아직도 時代錯誤的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냉전은 끝났으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냉전이 끝나가고 있다. 우리가 40년동안 유지해 왔던 冷戰的 思考方式은 미래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들은 기존의 가정들을 재검토 해야 하며,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여러가지 면에서 북한은 革命的 社會主義 (Revolutionary Socialism)의 최후 요새이며 쿠바도 이와 같은 예가 된다.

한편, 미국도 남한에서 1953년 이래로 유지해 왔던 冷戰的 姿勢를 아직도 견지하고 있으며 변화의 징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세계의 變化 趨勢로부터 교훈을 얻고 아울러 기존가정들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문제를 연구한 이래로 1989년보다 좋은 때를 보지 못했다. 변화는 바로 우리곁에 와 있으며, 내가 사는 동안 한국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美國 :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리더십과 세대간의 변혁을 거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스탈린, 브레즈네프, 모택동, 등소평의 退陣 (Passing)에서 보듯이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은 과거정책에 理念的으로, 精神的으로, 情緒的으로 一體化되어 있는 人物들이 交替됨으로써 가능하다.

美國 : 북한에 또 하나의 고르바초프가 필요할지도 모르나, 新思考 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서도 역시 또 하나의 고르바초프가 필요하다.

美國 : 내가 보기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11.8 제안』을 보면, 부시대통령의 大規模 兵力減縮, 武器水準 特定減縮, 빠른 推進計劃 등의 NATO 軍縮提案이 생각한다.

美國 : 그러나 韓半島와 유럽의 狀況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고르바초프 이후 가능했던 信賴의 形成은 한반도에서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美國 : 당신의 두 同盟國(Allies)인 소련과 중국도 변화하고 있다.

北韓 : 이웃국가들(Neighbors)이다.

美國 : 우리는 『同盟國』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그것은 특별한 이웃을 의미한다. 중·소는 사회적·정치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進歩』라고 칭하는데 그것은 외부 세계에 개방하며, 그들의 統制經濟體制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이 북한의 리더십 構造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北韓 : 거기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고, 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각 나라의 상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펴는 정책 또한 다르기 마련이며 잘살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정책을 쓴다고 말하여진다. 우리는 이웃국가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美國 : 나는 地域的·世界的 環境을 더 강조하고 싶다.

특별히 美·蘇, 美·中, 中·蘇關係가 向後 몇년동안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은 韓國問題를 개선하는데 매우 根本的인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들은 韓國問題가 보다 큰 國際環境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없으므로, 軍備統制 및 기타 수단을 통해 亞細亞·太平洋 地域의 一般的인 緊張緩和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美國 :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남과 북의 문제로 귀결된다. 緊張緩和는 기본적으로 非武裝地帶의 兩側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므로 그들이 할 일이다.

美國 : 그것은 내 느낌만은 아니다. 여기의 많은 참석자들은 미국이 이 지역 緊張緩和에 主導權을 가져야 하며, 또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美國 :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미국은 이 문제에 보조적인 역할을 맡으며, 실제로는 北韓과 南韓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 역시 強大國 關係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의가 南韓의 學者와 市民, 北韓人, 美國人, 蘇聯의 東北亞細亞 專門家를 포함한 더 큰 세미나로 발전되어 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 集團安保 (Collective Security) 概念을 擴張시킬 수 있을 것이다.

北韓 : 統一問題에 관한 한, 그것은 조선민족 스스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아직도 朝鮮半島問題에 介入되어 있기 때문에 緊張緩和를 위해서는 미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지금 3者會談을 가지기를 꺼려하지만, 1981년 3者會談提議의 主導權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認定한 바 있다.

그리고 이것을 東北亞細亞 問題로 연관시키면 소련의 會談參與可能性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美國 : 5천년 역사를 가지고 민족적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는 한민족의 경우 남과 북의 태도가 外部勢力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고는 믿기 어렵다.

그들 서로간의 태도가 支配的 (Dominant)인 것이며, 워싱턴, 베이

징, 도쿄, 모스크바에서 일어나는 일은 2차적인 것이다.

北韓 : 그렇다고 해서 核武器를 포함하여 남조선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朝鮮問題 解決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이 獨立的이고, 非同盟의이며 中立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美國 : 그러나 북한은 交流의 문을 열어야 한다.

北韓의 未來는 세계변화와 함께 해야하며 더이상 隱遁의 王國(Hermit Kingdom)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는 지금부터 일년동안 샌프란시스코의 조그만 식당의 내 손님으로 북한대학생의 대표들을 초대하고 싶다.

평양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당신이 좋다면 파리나 니스도 좋다.

北韓 : 물론 샌프란시스코는 좋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평양의 세미나에 초청하고 싶다. 한번의 세미나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앞으로 더 많은 세미나가 열리길 원한다.

附 錄 目 次

- A. 美國務部 副次官補 『윌리엄 클라크』의 下院 亞細亞·太平洋 小委員會 聽聞會 證言 (1989. 6.26)
- B. 北韓의 段階的 美軍撤收 및 北南 相互 軍縮提案 (1987. 7.23 및 1988.11. 7)
- C. 北韓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創立 方案 (1980.10.10)
- D. 金大中 總裁의 『공화국 연방』 統一案 (1973. 3.12 및 1987. 8.15)
- E. 盧泰愚大統領의 7.7 宣言 (1988) 및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 (1989. 9.11)
- F.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副委員長 김영남의 『民族統一協商會議』 提議 (1989. 9.28)
- G. 南北關係 및 統一問題에 관한 『해리슨』과 황장엽의 對談
- H. 北韓 國際問題研究所 副所長 김종수의 開會辭
- I. 美國務部 韓國課長 『토마스 H. 던롭』의 午餐辭

부 록 A

美國務部 副次官補 「윌리엄 클라크」의 下院 아시아·太平洋小委員會 聽聞會 證言 (1989. 6.26)

問 : 현재의 南北關係를 평가해 주시오.

答 : 南北對話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아마 금년 下半期쯤 再開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별 進展은 없을 것 같다.

南北對話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盧泰愚大統領이 작년 7.7 과 10.18 (UN 總會演說) 발표한 바와 같이 南韓의 對北和解追求 政策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며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問 : 南과 北사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會談이 있는가?

答 : 南北對話는 작년 가을이래 여러갈래(國會會談, 高位級會談, 體育會談)로 再開되었다. 赤十字會談 재개 역시 合意狀態이며, 이 會談이 제일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兩側은 회담결렬의 責任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北韓은 남한측이 文의환목사 등을 구속하는 등 人的 往來를 방해하고 있다고 非難하며, 남한측은 北韓이 그러한 訪問을 이용하여 體制를 전복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問 : 國會會談이나 高位級會談이 가까운 장래에 열릴 것이라고 보는가?

答 :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다른 會談 뿐 아니라 當局者會談도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빠를 수록 좋을 것이다.

問 : 緊張緩和와 統一問題에 관해 양측 立場의 기본적인 變化는 없는가?

答 : 1988년 韓國은 對北和解 및 北韓의 고립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美國, 日本 등 우방의 협조를 要請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措置는 도쿄나 워싱턴 뿐 아니라 모스크바, 북경 등 많은 나라로부터 呼應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變化도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韓國政府가 統一政策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전통적인 統一接近 方式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는 盧泰愚大統領의 對北政策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왔으며 韓國國民의 통일열망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계속 支持하는 한편, 북의 침략으로부터 自由를 지키기 위해 韓國과 공동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問 : 작년 우리 政府는 북한에 대해서 3가지 政策變化, 즉 ① 交流를 위한 비자 발급 ② 사교적 場所에서의 外交官 接觸 再開 許容 ③ 事例別 인도주의적 貿易許容 措置를 취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 비자가 얼마나 발급됐으며 실제로 北韓사람들이 여기에 왔는가?

答 : 사실 우리는 사교적 모임에서 外交官 接觸許容 이상의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北韓官吏들과 실질적인 會談을 위해 私的으로 만났다.

우리 조치가 취해진 이후로 17개의 비자가 발급되었고, 13명의 북한인이 美國을 訪問했다.

問 : 外交官 接觸은 몇번이나 있었나? 그것은 모두 베이징에서 이루어졌는가?

答 : 베이징에서 모두 4번의 접촉이 있었다. 접촉은 政治參事官 水準이었으며, 가장 最近의 것은 1989년 5월 15일에 있었다.

問 : 무엇이 討議되었는가?

答 : 外交官 接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接觸에서는 양측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입장들만이 반복되어 진전이 없었다. 북한의 입장은 1988년 11월 7일 發表한 聯合聲明(包括的 平和方案)속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南과 北의 直接對話가 중요하며 우리가 1988년 10월 31일 발표한 措置에 대해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強調했다.

우리는 그러한 조치들의 例를 提示하였는 바, 軍정위를 통한 미군 유해 반환, 실질적인 南北對話, 비방·증상증지, 板門店에서 信賴構築 措置의 진지한 協議(남과 북의 直接對話) 등이다. 그리고 서로간의 관계가 正常化되기 전 북한의 國際테러支援 問題도 만족스럽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問 : 北韓과의 인도주의적 貿易이 실제로 있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答 : 그러한 貿易은 아직 없다.

부 록 B

미군철수 및 북남의 단계적 군축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1987. 7.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통일된 강토에서 영원히 전쟁과 불안
안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망에 맞게 조선반도
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서 결정적국면을 열어
놓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단계적무력축감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다
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조선에서 북과 남의 무력균등을 증강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서
로 무력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북과 남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력을 축소하며 1992년부터 각각 10 만이하의 병력을 유지하여야 한
다.

둘째, 북과 남의 병력이 먼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남조선
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북과 남의 무력이 10 만으로 축소
되면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
기지를 철폐하여야 한다.

셋째, 조선의 북과 남은 각기 자기측의 무력축소정형을 상대측에 통
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하며 미국은 자기 군대의 철수정형을 우리
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한다.

현재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조선의 북과 남에서의 무력
축소정형과 미군철수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단계별로 진행
하여야 한다.

넷째, 북과 남의 병력이 축소되는 기간과 그 이외에도 있을 수 있

는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방지하며 계속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여기에 중립국감시군을 주둔시킨다.

다섯째,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축소와 철수 및 그에 대한 검증문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와 중립국감시군조직 및 그 배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선의 북과 남, 미국사이의 회담에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뿔스카,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다국적인 군축협상을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진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1987년말까지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일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이 대폭 축소되고 외국군사기지가 철폐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가 평화복도로 전환되면 조선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 비핵평화지대, 완충지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군축제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요인이 영원히 제거되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밝은 전망이 열려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 성명 (1988.11.7)**

<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 >

1.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

1) 미군무력의 단계적인 철수

①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 핵무기들을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핵무기의 철수는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먼저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한다.

②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을 철수한다.

미군병력의 철수는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와 함께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의 부산, 진해 계선으로 일단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지상군의 전체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는 해, 공군의 전체를 철수한다.

③ 미국은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날부터 남조선에 새로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미국은 남조선에서 철수하게 될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지 않는다.

2)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① 북과 남은 서로 병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무력균형을 유지한다.

병력의 축감은 군사분계선 전연지대에 배치된 병력과 특수부대, 특전대병력부터 먼저 하는 원칙에서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북과 남의 병력수는 각각 1989년말까지 40만명, 1990년말까지 25만명 수준으로 축감하여 1992년부터는 10만명 이하로 유지한다.

② 북과 남은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를 단계별로 축감한다.

군사장비의 축감은 단계별 병력축감에 맞게 하되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는 1 단계에서 완전히 폐기한다.

무력의 축감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의 반입을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무력축감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안에 모든 민간군사조직을 해체한다.

3)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① 미군무력의 철수정형에 대하여 미국은 북측에 통지하고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에 대하여 북과 남은 상대측에 각각 통지하며, 호상 통지한 내용을 공개한다.

②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여 미군무력의 철수정형과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4) 북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한다.

3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조미, 북남사이의 쌍무회담도 할 수 있다.

② 3자회담에서는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검증문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폴스카, 체스꼬슬로벤스코,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을 방청으로 참가시킨다.

③ 3자회담에서는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합의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조미사이의 평화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선언

으로 확인하고 고착시킨다.

2.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1) 정치적 대결상태의 완화

① 북과 남은 호상 비방증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비방증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뼈라살포와 군사분계선일대의 전연방송을 중지한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를 중지한다.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법규들을 철폐한다.

③ 북과 남은 정당·단체와 개별인사들의 쌍무적, 다무적 접촉과 자유로운 인사래왕을 실현한다.

북과 남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리용하며 상품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며 공동협력을 실현한다.

2)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① 북과 남은 쌍방 무력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들로 조직된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한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전후방에서 연합부대이상의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규모여하를 막론하고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일체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지상과 해상 및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을 중지한다.

④ 북과 남은 우발적인 충돌사건이 확대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쌍방 고위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3)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는 실지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실권을 가진 쌍방의 고위급 정치군사대표가 참가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안에서 고위급 정치회담과 군사회담을 따로 할수 있다.

부 록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10.10)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통일국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중립국가로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전영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이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 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블록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

하고 대내외 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민족의 근본이익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명백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정당·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 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 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인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합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 개발하고 리용하며 상호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작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

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 문화예술, 민족 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후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협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 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 정부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길을 개발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지역에 걸쳐 전신·전화가 가능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리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민족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 각종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기본

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체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노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노동 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영세 농어민들과 소상공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상호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들과 남조선〈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속

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하며 조국에 돌아와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여야 통일국가안에서 전민족적 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연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입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립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세,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에 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여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블록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름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여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 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 록 D

金大中의 日本 外信記者 클럽 演說(발췌)

(1973.3.12 , 도쿄)

내가 구상하는 것은 하나의 코리아 깃발아래 南과 北을 聯合하는 느슨한 聯邦制度이다. 兩側은 자유로이 자기의 外交・軍事・國內政策을 행하며, 점차 세계 각국에 대해 共同外交(Joint Diplomacy)를 採擇해 나간다. 이것은 完全한 統一로의 움직임중 첫번째 段階가 될 것이다.

金大中의 民推協 8-15 紀念辭(발췌)

(1987.8.15 , 서울)

우리가 民主的 政府를 가질때에만 세번째의 『解放』(third restoration of independence)을 성취할 수 있다. 그것은 民主的 政府만이 나라를 통일하는데 필요한 民族的 양심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獨裁者들이 民族統一에 대한 순수한 양심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經驗으로부터 알 수 있다.

박정희대통령은 維新憲法을 宣布하면서, 『나는 이 憲法을 반대하는 사람은 統一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것은 統一을 위한 憲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維新의 7年동안 통일을 위해 아무런 努力도 안했으며, 단지 그의 終身支配를 위해 그 슬로건을 利用했을 뿐이다.

民主的 政府만이 國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北韓共產體制로 하여금 赤化野慾을 포기하게 할 수 있으므로 南北의 平和共存을 가져

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첫단계로 兩側의 平和構造가 定着되었을 때 韓國은 北韓共產主義體制를 獨立政府로 인정하게 되며, 北韓도 韓國을 獨立的인 民主政府로 인정하게 된다. 兩側은 平和共存을 위해서 그들의 대표를 派遣해 매우 약한 權限을 갖는 聯邦機構를 만든다.

연방기구는 두개의 任務를 갖는데 그중 하나는 남과 북사이에 성취된 平和構造를 確固히 維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연방기구는 모든 調査와 判斷을 할 權限을 갖게 될 것이다. 두번째 段階로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기 위해서, 文化, 言論, 學術, 人的往來, 旅行, 體育 등의 다방면적인 交流를 실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측은 平和共存下에 民族的 同質性을 회복시켜 나가게 되며, 統一問題는 政治分野로부터 벗어나서 다음세대가 그 課題를 擔當하여 統一로 한걸음씩 나가게 된다.

北韓의 金日成이 제안한 聯邦共和國 (A Confederal Republic)은 美國이나 캐나다 같은 聯邦形態의 순수한 단일국가를 創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完全히 불가능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共和國聯邦 (A Confederation of Republics)으로 북한은 北의 것과는 이름이 반대다. 우리는 두개의 獨立共和國 위에 制限된 權限을 갖는 聯邦共和國를 建設하여 서로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威脅하지도 않고 威脅당하지도 않는 體制로 發展시켜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세번째의 『解放』이라고 생각한다.

부 록 E

盧泰愚大統領의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에 관한 特別宣言』

(1988.7.7)

나는 오늘 온겨레의 念願인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實現해 나가기 위한 새 共和國의 政策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民族이 南北分斷의 고통을 겪어온지 半世紀가 가까와 옵니다.

分斷의 역사는 우리 民族에게 슬한 試鍊과 苦難을 주었으며, 민족의 正常的인 發展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南北分斷의 障壁을 허물어 繁榮된 統一祖國을 여는 길을 開拓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民族史의 召命이 아닐 수 없습니다.

相異한 理念과 體制로 분단된 남북은 同族相殘의 전쟁을 치루었으며, 南北으로 갈라진 겨레는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不信, 誹謗하며 서로를 敵對視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南北分斷은 우리 민족의 意思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民族統合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自主的 力量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和解와 協力の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福祉와 繁榮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理念과 體制를 超越하여 和解와 協力の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文化와 歷史가 다른 民族 사이에도 과감한 開放과 交流의 새 물결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危險과 對決의 긴장이 尙存하고 있는 한반도에 平和를 定着하고 통일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確信합니다.

동포여러분!

우리가 아직 悲劇的인 分斷現實을 克服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南과 北이 民族共同體라는 意識을 등진채 서로를 對決의 相對로 여겨 敵對關係를 激化시켜 온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共同體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試鍊과 挑戰을 克服하면서 빛나는 歷史와 文化傳統을 創造해 왔습니다.

따라서 南과 北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民族共同體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繁榮된 統一祖國을 實現시키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民族自尊의 길이며 民族統合의 길입니다.

이제, 南과 北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交流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相互 信賴를 回復하고 民族的 紐帶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취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對外的으로도 하나의 共同體라는 認識을 바탕으로 對決의 關係를 止揚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成員으로 國際社會에 기여하고, 그것이 北韓社會의 開放과 發展을 促進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北韓은 相互間에 서로의 位置를 인정하고 民族全體의 이익을 위해 協力해야 합니다.

친에 하는 6千萬 동포여러분!

나는 오늘 自主・平和・民主・福祉의 原則에 立脚하여 民族構成員 전체가 참여하는 社會・文化・經濟・政治共同體를 이룩함으로써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內外에 宣稱합니다.

1.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南北同胞間의 相互交流를 적극 추진하며, 海外同胞들이 자유로이 南北을 往來하도록 門戶를 開放한다.
2. 南北赤十字會談이 타결되기 以前이라도 人道主義的 見地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離散家族들간에 生死・住所確認, 書信往來, 相互訪問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周旋・支援한다.
3. 南北間 交易의 門戶를 開放하고 南北間 交易을 民族內部交易으로 看做한다.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向上시킬 수 있도록 民族經濟의 均衡的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非軍事的 物資에 대해 우리 友邦들이 北韓과 交易을 하는데 反對하지 않는다.
5. 남북간의 消耗的인 競爭・對決外交를 終結하고 북한이 國際社會에 발전적 寄與를 할 수 있도록 協力하며, 또한 南北代表가 國際舞臺에서 자유롭게 만나 民族의 共同利益을 위하여 서로 協力할 것을 희망한다.
6.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시킬 여건을 造成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友邦과의 關係를 개선하는데 協助할 用意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蘇聯・中國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關係改善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北韓側도 적극 呼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肯定的인 姿勢를 보여 온다면 보다 前進的인 措置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宣言이 統一을 향한 南北間의 關係發展에 새로운 章을 여는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6千萬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世紀가 가기전에 南과 北은 하나의 社會的·文化的·經濟的 共同體로 統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는 머지 않아 하나의 나라로 統一하는 偉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합니다.

盧泰愚大統領의 『한민족공동체』統一方案 發表

(1989.9.11 , 第 147 回 國會開會演說)

憲法이 大統領에게 부과하고 있는 嚴肅한 義務에 따라 저는 南北이 自主·平和·民主의 3原則을 바탕으로 南北聯合의 中間過程을 거쳐 統一民主共和國를 實現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議員여러분, 그리고 內外同胞 여러분,

統一된 우리의 祖國은 민족성원 모두가 主人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自由와 人權과 幸福이 保障되는 民主國家여야 합니다.

민족성원 모두의 參與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主義·主張이 자유로이 表現되고 대변되는 民主共和體制는 온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民族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統一된 나라의 유일한 選擇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統一된 祖國에서 어느 特定人이나 어느 集團, 어느 階級도

特權이나 主導的인 지위를 누리거나 獨裁로 전횡하는 일은 容認될 수 없을 것입니다.

統一된 祖國은 민족성원 모두의 福祉를 增進하며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平和와 人類의 福利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民族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統一된 우리나라는 單一國家여야 하며, 이것이 民族의 소망입니다.

理念과 體制가 다른 두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形態는 온전한 統一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統一을 이루는 原則은 어디까지나 民族自決의 精神에 따라 自主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民主적으로 實現되어야 합니다.

議員 여러분,

統一은 하루빨리 實現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를 가진 南과 北이 分斷 40餘年間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의 關係를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統一을 이룰수 없는 것이 우리의 現實입니다.

우리는 分斷이 있기까지 5千年의 긴 歷史를 통해 한 핏줄, 같은 言語, 같은 文化傳統,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民族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이 民族공동체야말로 現在도 南北으로 갈라진 民族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統合을 이루어야 하는 當爲이자 이를 保障하는 根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國土分斷은 좌우익간의 流血鬪爭과 6·25 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치열한 戰爭을 겪으면서 民族의 분열로 심화되었습니다.

敵對하는 두 體制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南北의 겨레는 生活樣式과 價値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民族社會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國家를 만들수는 없습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로 回復·發展시키는 일이야말로 統一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統一로 가는 中間段階로서 먼저 南과 北은 서로 다른 두 體制가 存在하고 있다는 現實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認定하고 共存共榮하면서 民族社會의 同質化와 統合을 促進해 나가야 합니다.

南北間에 開放과 交流·協力을 넓혀 信賴를 심어 民族國家로 統合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같이 하여 社會·文化·經濟的 共同體를 이루어 나가면서 南北間에 存在하는 각종 問題를 해결해간다면 政治的 統合의 與件은 성숙될 것입니다.

統一을 促進할 이 과정을 制度化하기 위해 雙方이 合意하는 憲章에 따라 南北이 聯合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聯合體制 아래에서 南과 北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共同의 繁榮을 이룩하고, 民族同質性을 回復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發展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完全한 統一國家로 가는 中間과정의 과도적 統一體制라 할 수 있습니다.

南北聯合은 최고 결정기구로 「南北頂上會議」를 두고, 雙方政府 代表로 구성되는 「南北閣僚會議」와 南北國會議員으로 構成되는 「南北評議會」를 設置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南北은 關係會議와 評議會의 業務를 支援하고 合意事項 履行 등 實務를 위해 共同事務處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派遣할 수 있을 것입니다.

共同事務處를 비롯한 南北聯合의 기구와 施設을 비무장지대안에 平和區域을 만들어 設置할 수 있을 것입니다.

平和區域은 점차 『統一平和市』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南北關係會議는 南北의 總理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內외의 關係級 委員으로 構成하고, 그 안에 人道, 政治·外交, 經濟, 社會·文化分野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수 있을 것입니다.

南北關係會議는 南北間의 모든 懸案과 民族問題를 協議 調整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具體的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業務를 遂行할 수 있습니다.

人道的으로는 1千萬 離散家族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政治·外交分野에서는 南北間에 政治的 내결상황을 緩和시키고 國際社會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海外同胞의 權益은 물론 民族的 利益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經濟 및 社會·文化分野에서는 우선 南北社會의 開放과 다각적인 交流·交易·協力을 推進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장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共同繁榮의 經濟圈을 形成하면 南北 모두의 發展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向上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軍事分野에서는 과도한 軍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 상태를 解消하기 위하여 軍事的 信賴構築과 軍備統制를 實現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現在의 休戰協定 體制를 平和體制로 바뀌어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南北評議會』는 100명 내외로 雙方을 代表하는 동수의 南北國會議員으로 構成하되, 統一憲法의 기초와 통일을 實現할 方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應할 수 있을 것입니다.

『南北評議會』는 統一憲法의 기초과정에서 統一國家의 政治理念·國號·國家形態 등을 論議하고, 對內外政策의 基本方向이나 政府形態는 물론 國會構成을 위한 總選舉의 方法·時期·節次 등을 討議하여 合意해야 할 것입니다.

南北은 각기 구상하는 統一憲法 초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統一憲法 초안이 마련되어 民主的 方法과 節次를 거쳐 確定·公布하고, 이 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선거를 실시하여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統一祖國의 國會는 地域代表性에 立脚한 上院과 國民代表性에 立脚한 下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統一民主共和國를 樹立하여 統一의 대업을 완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南北의 現實에 부합하는 가장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方案이라고 確信합니다.

부 록 F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남의 『민족통일협상회의』제의 (1989. 9.28)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세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외지와 거대한 힘을 목적 지향성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의 조국통일 방도를 마련할것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통일정세 발전의 추이를 예견성있게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올해 신년사에서 어떻게 하나 빠른 시일안에 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합의를 이룩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또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합리적인 방도에 대하여 민족적인 합의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이룩하는것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하는데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인 합의를 이룩해야 앙양된 통일열의와 민족의 거대한 힘을 헛되이 함이 없이 통일운동을 합목적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빨리 앞당겨올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80년에 있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할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남이 서로 대치되어있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제도를 그대로두고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가장 공명정대한 구국통일방안입니다.

북과 남의 두제도를 단일화한다는 구실밑에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을 끝없이 지속시키는것은 민족의 통일념원을 외면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사실상 통일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의 실정과 우리민족의 리익에 맞게 가장 빨리 순조롭게 풀어나갈수있는 길은 오직 련방제방식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최근 나라의 자주적 평화적통일을 위한 운동이 급속히 발전하고 통일론의가 심화되고있는 가운데 남조선에서도 여러 정당, 단체, 개별적 인사들이 련방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통일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 당국도 늦게나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북과남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통일방안들은 물론 서로 차

이점들도 많으며,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과남의 당국과 각 정당 단체들이 제각기 자기의 통일방안을 시야에서야만 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아 온 거래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하나의 통일방안을 정립해야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접수될수 있는 하나의 통일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이러한 공동작업이 없이 제각기 자기가 내놓은 방안을 주장할 내기나 한다면은 우리는 인제가도 통일문제 해결에서 서로 보조를 같이할 수 없을것이며, 통일을 향하여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을 것입니다.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마련해야할 이 중대한 역사적 임무는 바로 우리들, 북과남의 정치인들에게 부과되어있습니다.

북과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대표들은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자기들앞에 부과된 숭고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국자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앉아 절박하게 제기된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찾는 데 모든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얼마나 빨리 앞당기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통일문제 해결의 직접적 당사자인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은 북과남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으며 당면하게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도 북과남의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만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가까운 시일안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북과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남조선당국과 각 정당 단체들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협상회의는 북과 남의 구별없이 모든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다부적 원탁회의 방식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민족통일협상회의는 통일대화에 적극 참여하려는 각정당·단체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북과 남의 지도급 인사들을 비롯하여 모두 60명 정도의 대표들이 참가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민족통일협상회의에서는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단체들이 내놓은 조국통일 방안들을 광범위하게 협의하고 조국통일 방도에 관한 민족의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며 이밖에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다른 건설적인 제안들도 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성과적으로 소집하기위하여 지금부터 일정한 기간 북과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들 사이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인 예비접촉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민족통일협상회의가 성과적으로 소집되어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이룩되게되면 그것은 우리민족의 통일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될것이며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 공동성명 발표이후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될것입니다.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 전도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신심을 주고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게될것입니다.

이렇게되면 당면하여 북과 남의 여러방면의 대화들도 성과적으로 추진되게될것이며 다각적인 협력과 교류의 길도 활짝 열리게될 것입니다.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북과남의 정치인들은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 앉아야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0여년동안 북과남의 정치인들은 다같이 통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언제 한번 한자리에 모여앉아 통일문제를 진지

하게 협의한일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아닌 학자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심지어는 한창 배울나이에 있는 학생들까지 통일을 위하여 서로 만나자고 하고 70고령의 노인과 20대의 젊은 세대까지 일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남북을 오가는 이때에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북과남의 정치인들이 무엇때문에 현실을 외면한채 서로 담을 쌓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북과 남의 정치인들은 민족의 중대사를 앞에두고 서로 마주앉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지체없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조국통일방도를 공동으로 마련해야할 절박성에 비추어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세 제안이 담긴 편지를 본 연석회의의 이름으로 곧 남조선 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보낼것을 제의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과 정당단체인사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우려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발기에 기꺼이 응해나서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다같이 민족적 럽장에 서서 함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면 아무리 견해차이가 크고 통일방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 된다하여도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할 이 중대한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40여년간 외세에 의하여 조장되어온 모든 대결관념과 적대적 편견을 버리고 진정으로 단합하고 화해하는 새로운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조건에서 우리민족이 선택할수 있는 최선의 통일방도로 된다고 확신하지만 서로 화해하고 존중하며 양보하는 럽장에서 다른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며 통일에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누구의 것이든 폭넓게 수용할것입니다.

우리민족은 일제식민지 통치시기보다 더 오랜 40여년간을 분렬의 비극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우리는 민족분렬의 이 비극을 절대로 반세기이상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민족분렬의 50년이며 조국해방 50돌이 되는 1995년을 반드시 통일성업을 완성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해야합니다.

부 록 G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관한 해리슨과 황장엽의 대담

(1988.5.24, 美하원 亞·太小委員會에서의 해리슨의 증언)

내가 만난 북한관리들은 남한에서의 經濟成長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으며, 남한을 共產主義로 통일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금년도에 남한의 반대세력을 부추기는 것은 永久共產革命의 진조가 아니냐고 질문을 하니까 황장엽은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말도 안된다. 韓國戰爭 이래로 거의 40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남한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한다. 남조선의 야당들은 社會·經濟體制를 변화시킨 만한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비록 야당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美國에 될 종속된 民主政府 樹立을 革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남한내 學生運動과 勞動運動의 확산은 반대세력을 더욱 좌익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내 의견에 반대하면서 그는 『다른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세력은 남조선인민을 리드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經濟·社會體制下에서 平和的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의 관리들은 두개 조선의 법적(de jure) 인정은 계속 거부하면서도 실존하는 두개의 國家實體(existing reality of two Korean States)는 인정하는 등 統一問題에 관한 체면유지적 협상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統一問題에 관해 북한은 聯邦制 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과 북은 자치정부로 각각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며, 聯邦政府는 하

나의 연합군과 두 자치정부를 감독하는 상설위원회를 가진다. 이것은 統一로 가는 과도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예견했던대로 남한은 그 제안의 저의가 남한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북한의 高麗聯邦共和國方案에 대한 代案을 제시하였다. 김대중의 共和國聯邦案에 따르면, 남과 북은 각각 독립된 군대를 갖고 있는 主權國家로 있으면서 하나의 깃발아래 交流·貿易·外交政策을 발전시킬 聯邦機構를 만드는 것이다.

내가 북한의 統一方案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니까 황장엽과 다른 관리들은 『만약 우리가 두개의 조선을 합법화하기 보다 聯邦쪽으로 나가려고만 한다면 당신은 우리안이 매우 신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金大中案 뿐 아니라 聯邦制를 指向하는 어떠한 案도 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황장엽은 또 『聯邦은 轉移段階가 아니라 統一의 최종단계이며, 두개의 서로 다른 經濟·社會體制의 통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원칙상, 연합군은 장기적 목표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두개의 조선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 특별히 병력이 감소될 수 있다면 - 두개의 군대를 갖는 것은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강대국들의 남북한 교차승인 움직임이 『制限된 聯邦制』(limited confederation)를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북한은 이러한 것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황장엽은 강하게 시사하였다. 교차승인은 美國政策의 명시적 목표이나 그것은 북한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리고 북한이 美國과 공식적인 外交關係를 갖고 싶은지를 질문하였는데 그는 『連絡事務所(liaison office) 설치는 平和協定締結 후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미군을 철수하고 聯邦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완전한 관계는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부 록 H

北韓 國際問題研究所 副所長 김종수의 開會辭

존경하는 카네기 國際平和財團 토마스 휴즈회장.

나는 먼저 참가단을 대표하여 휴즈씨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를 초청해주고 친절을 베풀어 준 셸리그 해리슨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아울러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의 緊張緩和와 統一問題에 관한 견해를 나누기 위해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먼저 朝鮮半島의 緊張緩和에 대해 언급코자 한다. 平和롭고 調和롭게 사는 것은 조선과 美國, 전세계 인민들의 공통된 念願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계의 많은 인민들이 軍備競争을 지양하고 軍縮을 지향하고 있다. 그들은 대 땅트를 갈망하고 있으며 戰爭을 반대하고, 平和를 갈망하고 있다. 이것은 명확한 世界趨勢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朝鮮半島만 유독 緊張狀態가 고조되고 있다. 당신들도 아다시피, 停戰協定 이래로 36년이 지났으나 戰爭도 平和도 아닌 不安이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곳은 朝鮮半島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없을 것이다.

현재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군대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전면적인 戰爭으로 화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朝鮮半島 緊張狀態는 아무에게도 利益이 되지 않으며, 美國과 남조선에게 군사적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우리라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날 길이 없다.

朝鮮半島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이 장치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緊張緩和는 단순히 평화롭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民族生存과 관련된 生死의 문제이다.

緊張緩和는 朝鮮半島 통일을 위해 필요하며, 아울러 우리 인민의 최고의 국가 목표이다. 또 緊張緩和는 우리 두 국가(美國, 北韓)간에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는 緊張緩和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이 세미나가 조직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朝鮮半島의 緊張緩和를 성취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緊張의 根本原因을 이해해야 한다. 나라의 인위적 분단은 朝鮮半島 緊張狀態의 根本原因이다. 그와 같은 44년 동안의 민족적 분단은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증오와 적대감만 양산시켜 놓았다.

朝鮮半島 緊張狀態의 다른 원인은 미군이 남조선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고, 核武器를 배치하며, 팀스피리트훈련 등을 통해 戰爭雲圍氣를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美國과 남조선 당국은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날조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조선의 緊張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매년 여름이 오고 수풀이 우거지면 이것을 이용해서 북이 남침을 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겨울이 오면 임진강을 이용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분단이래 녹음이 수십번 우거지고 임진강이 수십번 얼었어도 지금까지 어떠한 남침도 없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朝鮮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緊張을 緩和하고 戰爭威脅을 없애기 위해서는 停戰協定이 平和協定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停戰協定이란 그 말 그대로 단기간 동안 戰爭을 연기하는 협정인 것이다. 이러한 종류

의 협정은 불안하고 위험한 것으로 언제 우연한 사고에 의해 쉽사리 깨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예로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의 비류 나무절단사건으로 전면전의 위기까지 갔던 것을 생각해 보라. 당시 美國은 우리를 위협하였을 뿐 아니라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다. 다행히도 그 사건은 대규모 충돌없이 끝났지만 조금만 잘못 됐더라면 전면전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한 사건의 위험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의의에서 停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대체는 緊張緩和를 위해 本質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世界平和愛好 인민의 환영을 받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平和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朝鮮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해서는 남조선에 배치된 核武器를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외군의 존재는 民族統合을 방해하고 平和를 威脅하는 中心要因이다. 외군이 우리나라 반쪽에 배치되어 있는 한 平和는 성취될 수 없으며 平和를 논의해 봐야 헛소리일 뿐이다. 한나라의 主權이 외군의 발발굽아래 놓여 있는 한 主權을 회복하고 외군을 쫓아내려는 鬭爭은 당연한 것이다.

國家의 主權이 깃뎛혀 있는데 외군의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더러 외군의 노예로 살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국가의 크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가의 尊嚴性과 主權은 다른 어떤 것 보다는 소중한 것이다. 조선민족은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미군이 우리나라의 절반을 틀어쥐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 만약 외국인이 核武器를 가지고와서 샌프란시스코의 반을 점령한 채 당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런데 당신은 팔짱만 끼고 앉아 있겠는가? 당신의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데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美國의 애국자라면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어느나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미군 및 核武器撤收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들은 작년 11.7 우리의 포괄적 平和方案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제안이 수용되고 戰爭의 根本原因이 제거된다면 核戰爭의 위험은 사라지고 朝鮮半島는 非核平和地帶로 전변될 것이다. 동시에 북남간 적대 및 대결은 종식되고 信賴와 統一의 기운이 성숙될 것이다. 이 平和提案은 우리 시대의 趨勢와 일치한다. 오늘날 데탕트 趨勢를 볼 때, 세계 곳곳의 紛爭이 平和的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그들의 병력을 철수하거나 감소시키고 있다.

美國은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蘇聯軍을,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군을, 앙골라로부터 쿠바군을 撤收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蘇聯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軍撤收를 끝냈으며 쿠바군과 베트남군도 앙골라와 캄보디아로부터 撤收를 시작했다. 이제 美國이 이러한 趨勢에 따라 당연히 撤收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提案은 美國과 남조선 당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美國은 철수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南侵威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朝鮮半島에는 南侵威脅이 아니라 北侵威脅이 있다. 軍事問題에 조금이라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의 인구가 북의 2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남쪽에는 미군과 核武器가 있고 매년 대규모의 軍事訓練이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美國이 우리를 믿지 않을 것을 고려해서 美軍撤收가 한꺼번이 아닌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만약 미군이 철수하려고만 한다면,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한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美國의 사정을 감안하여 미군은 1991년에 끝나는 3 단계까지, 核武器는 2 단계인 1990년까지 撤收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미군의 전면 撤收와 함께 북과 남이 단계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문제도 제기한 바, 이는 兩側이 美軍撤收過程을 지켜보면서 상호 軍縮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 과정은 판문점의 中立國監督委員會에서 감시하게 된다. 이상이 韓半島 緊張緩和에 관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일부 美國人들은 우리 제안의 진실성을 믿지 않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 우리도 당신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서로 접촉이 부족했고 意見交換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함께 앉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공개나 비공개건간에 朝·美間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 의견을 자유스럽게 교환한다면, 상호 견해를 극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不信과 對決의 길보다 和解와 協力の 길을 걸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美國은 더이상 대결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그만 두고, 安定되고 平和로운 방법으로 조·미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의 統一問題를 언급하고자 한다. 朝鮮半島에서의 緊張緩和과 統一問題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고 함께 해결되어야만 한다. 統一의 問題는 歷史的 경험과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존 롤프(John Rolfe)가 포카혼타스(Pocahontas)와 결혼하여 미국이 주자들과 인디안간에 일시적 平和關係가 수립된 것과는 성질상 다르다. 統一은 歷史的 과정의 축적에 의한 명확하고 최종적인 것이다. 그것은

전 조선민족의 최고목표이며 國家運命에 치명적인 중요성을 가진 基本的인 問題이다.

조선민족은 單一言語와 文化로 이 땅에서 5천년 동안 같이 살아온 同質的인 民族이다. 그러나 북남이 분단된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다. 북의 할아버지는 남의 손자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남쪽에 있는 딸은 자기 자식이 북에 계신 할머니에 대해 물어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한 채 60살을 넘었다. 이것이 바로 全 朝鮮人, 家族, 國家의 비극이다. 만약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 분단이 계속된다면, 조선민족은 영원히 두 국가로 분단될 것이며 다시 外部勢力에게 희생되어 식민지 노예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한 한 共產主義건 民族主義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라를 잃고 共產主義를 건설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共產主義 思想을 가지고 있으나 民族利益이 최우선 課題이다.

우리의 경애하는 지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朝鮮의 統一問題는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의 3大原則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80년 10월,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設方案에서 위의 3大原則을 제시하였다.

聯邦共和國의 樹立은 현재 북남의 思想과 體制를 유지한 가운데, 동등한 기초위에 북남에 의해 대표되는 聯邦政府를 구성함으로써 統一을 이루는 것이다. 그같은 聯邦政府아래 동등한 權限과 義務를 갖는 地域的 自治政府가 구성되어 聯邦形態의 統一國家가 건설되는 것이다. 이러한 概念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和解와 統一을 촉진할 것이며, 아울러 國家의 틀안에서 理念的 大결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地球上에는 현재 20개의 聯邦國家가 있다. 이러한 예는 고대 그리

스의 都市國家聯合까지 저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두 聯邦實體間的 차이는 그대로 놔둔채 통일된 聯邦國家를 구성한 예는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전례가 없다는 이유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統一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또 우리 방안은 國家의 共同目標과 利益에 우선을 두면서도 思想과 制度의 차이를 초월한 民族單一體인 合理的 統一國家를 상정하고 있다. 高麗聯邦制는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한 빨리 조국의 統一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인 것이다.

수천년동안 單一民族으로 살아온 우리가 북과 남으로 서로 갈라져서 살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다. 분단된 조국을 統一하는 문제는 民族內部的 階級矛盾이나 서로 다른 體制의 대립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외부간섭에 대해 民族의 獨立을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全民族的 利益에 관한 문제이다. 高麗聯邦制는 1972년 7월의 北南共同聲明에서 채택된 통일 3대 基本原則을 구체화하고 있다. 統一國家는 어떤 특별한 계급이나 계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조선인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서로 양측에 해를 주지 않고 서로의 이해에 맞는 統一國家를 제시하고 있다.

高麗聯邦制의 地域自治政府는 國家의 單一성과 統一에 影響을 주는 틀안에서, 양측의 獨立性を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高麗聯邦制에서의 북남의 법적 위치는 두개의 다른 國家가 아니라, 하나의 統一國家 안에서 두개의 地域的 自治制(regional autonomy)로 성격지워진다.

統一政府는 政治的 問題, 防衛, 對外關係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國家問題를 全民족적 의사에 맞게 獨立的이고 공정하게 토의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高麗聯邦制가 합리적 형태의 統一國家이며 統一을 달성할 최선의 방도인 이유는 그것이 조국의 구체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타방을 삼키거나, 타방에 의해 먹히우지 않는 相互 共存의 原則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高麗聯邦制의 統一政府는 북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 뿐 아니라 公正性을 보장하기 위해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 民族이 두개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思想과 制度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나라의 團結과 統一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의 思想과 制度를 절대화하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피적으로 충돌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단이 계속된다면 조국의 統一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10대 施政方針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統一聯邦共和國은 어느 나라의 衛星國家도 되지 않을 것이며 平和愛好, 非同盟 및 中立國家로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북동아시아 및 주변국가에 平和를 보장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統一聯邦國家가 朝鮮半島에 창설된다면 社會主義國家 및 資本主義 國家와의 關係問題와 國際聯合 加入問題도 해결될 것이다.

聯邦形式의 統一方案은 내외인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얼마 전 문익환牧師가 平壤을 방문해서 祖國平和統一委員會와 共同聲明을 발표하였다. 그 共同聲明에 의하면 統一에의 실제적이며 단 하나의 길은 聯邦形態라는 것이다.

비록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조선의 정치인, 학생, 그리고 각계 과들은 聯邦方式에 의한 統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聯邦이야말로 전 조선인이 공감하는 統一方案임을 알 것이다. 남조선 당국도 이 統一方案을 못본체 하지는 않으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聯邦方式에 의한 統一이 역사적 필연으로 성숙되어가는 사실을 볼 때, 조선에서 戰爭危險을 줄이고, 緊張緩和를 촉진하는 등 전제조건을 실현하는 것이 급박한 문제로 대두된다. 聯邦國家로서 북남을 統一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잘 되어야 한다. 우리는 統一, 네탕트 및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북남대화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남대화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 그 이유는 대화가 統一을 위해 기여하지 못했고, 북남간 뿌리깊은 불이해와 불신의 원인인 첨예한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대치상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분단을 고착화하기 위해 대화를 이용한다면, 대화를 통해 統一을 이루려는 노력에 관계없이 대화는 아무 성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조선의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保障하기 위해서는 우리 共和國과 美國이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고, 남과 북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다.

美國은 현재 4만명의 미군을 남쪽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1천개의 核武器도 배치하고 있다. 美國當局과 군사전문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駐韓美軍 유지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상황은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에서는 反美感情이 증가하고 있으며, 駐韓美軍을 撤收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美國의 駐韓美軍撤收 및 減縮案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 5월초 레이건大統領의 특별보좌관이었던 CATO 연구소의 더글라스 반도우(Douglas Bandow) 선임연구원은 『지금이야 바로 韓半島에서 美軍이 撤收할 때다』라는 요지의 論文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유럽에서 蘇聯과 核武器 減縮協商을 벌이고 있는 美國은 당연히 아시아에서도 『緊張緩和와 平和』를 지향하고 있다. 전세계에 민족자결

권을 외쳤던 美國은 지금 남조선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사실상 남조선에서의 美軍撤收는 베트남에서의 패배와는 달리 명예로운 것이며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의 정치적 흐름이 억압과 지배에 반대하고 獨立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여기모인 지식인들께서 美國이 우리 共和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하고 駐韓美軍 및 核武器를 撤收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희망한다. 美國은 停戰協定의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조·미평화협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남조선에 배치되어 있는 核武器는 우리 共和國을 표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국가들도 향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은 日本과 同盟關係에 있으며 현재 中國, 蘇聯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으므로 朝鮮半島는 더이상 軍事的으로 戰略的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行政府는 美軍撤收에 관한 어떤 계획도 마련치 않고 있는 바, 이것은 조선문제 해결에 큰 障礙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왜 美國 行政府가 막대한 군사비를 탕진하며 세계도처의 비난을 받으면서 조선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조선을 조정통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美國이 조선의 自主的인 平和統一과 아시아의 平和 그리고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는 基本的인 政策變化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緊張緩和와 統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당사자인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중요하다.

平和와 統一과 같은 문제는 조선 전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統一을 위한 대화가 당국이나 개인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 북남국회회담,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북남연석회의를 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는 政治, 文化, 體育 등 다방면의 대화도 가질 것을 제의했다.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주석은 금년(89년)의 신년사에서 聯邦制 統一方案을 협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안에 平壤에서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들로 북남정치협상회의를 가질 것을 제의했으며, 이를 위해 民正黨, 平民黨, 民主黨, 共和黨 총재들과 金壽煥 추기경, 文益煥 목사, 白基琬 선생을 초청했다.

이같이 볼 때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信賴와 和解에 기초한 성실한 대화자세이다.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愛國은 統一이다. 만약 統一과 관계없는 愛國이라면 그것은 하등의 가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民族과 統一을 위해서 平壤을 방문한 문익환牧師를 남조선 당국이 구속한 행동은 民族과 統一에 반하는 것이며 이른바 7.7선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행동인 것이다.

진실로 남조선이 統一을 원하고, 民族을 위한다면, 문익환牧師를 즉각 석방시켜야 한다. 김일성주석은 또 統一을 위한 일념으로 平壤訪問의 좋은 일을 한 문익환목사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盧대통령이 대화에 응해야 하고 만약 응한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남조선 당국이 성실한 자세와 태도로 북남대화에 응해 나올 것을 기대하며, 美國도 조선문제의 平和的 解決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리라 확신한다.

美國은 남조선에 영원히 그 군대를 주둔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복잡한 조선문제에 계속 매여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테뭉트와 회해의 世界趨勢에 발맞추어 美國은 교차접촉·승인의 「두개조선」 정책을 재고해야 할 뿐 아니라 조선문제 해결을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문제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美國이 한번 올바른 결정만 내린다면, 조선문제는 비록 복잡하더라도 쉽게 해결되리라 믿는다.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朝鮮半島의 지속적인 平和를 保障하고 統一을 실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 세미나가 조선의 緊張을 緩和하고, 조선을 平和的으로 統一하며,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전환점이 될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 바란다.

나는 다음 세미나를 平壤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며, 國際問題研究所를 대표해서 여기오신 모든 분을 초청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초청에 肯定的으로 응해주시기를 바란다.

附 錄 I

미 국무부 한국과장 『토마스 더롭』의 午餐辭

부시大統領이 89.2.27 한국국회에서 연설한 바와 같이, 미국은 韓國民에게 수용될 수 있는 條件下에서 韓半島 平和統一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盧大統領의 對北關係 改善努力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들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一方의인 措置들을 취해 왔으며, 窮極의으로 그러한 조치가 통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같은 方向下에, 미국은 北韓代表와 실질적인 대화를 가졌다. 또 우리들은 북한에의 集團旅行을 許可하였을 뿐 아니라 규제를 풀어서 북한에 穀物 및 基礎生必需品을 輸出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금년에는 몇명의 北韓代表團에게 비자를 발급하였다. 나는 여기에 오신 분들을 包含하여 美國訪問者들이 미국인의 의견의 다양성과 평화롭고 繁榮된 世界를 향한 진지한 노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돌아가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의 訪問者들이 한반도에 대한 美國의 政策을 더 잘 알고 돌아가길 원한다.

韓國問題 解決은 韓國민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의 基本的인 立場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建設的인 役割을 하길 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支援的인 役割(Supporting Role)일 뿐이다. 한반도의 兩 당사국은 함께 만나서 그들을 分斷시키고 있는 문제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南北韓의 直接對話가 중단되어 왔다.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南北을 分斷시키고 있는 심각하고 複雜한 문제들이 建設的으로 논의되길 바란다. 世界에는 지금 관련 당사국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곳마다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 南北間의 直接對話로 긴장이 완화되어야만, 美·北韓間 政府接觸이 이루어질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非公式的이고, 非政府的인 미·북한 접촉은 앞으로 계속 擴大되어야 할 것이며, 이같은 對話가 여기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